

극한직업

180226

연출 이병헌

CJ E&M
&
어바웃필름

1. 타이틀

묵직한 주제의 액션 활극 장르영화임을 암시하는 타이틀 영상이 흐른 후..
암전.. 저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가 싶더니 사라진다.

화면 열리고.. 귀에 꽂은 무선장치를 재확인하는 누군가의 손.
암전.. 무전기 소리.. 지직.. 지직..

(영호) “용자 위치 조명 완료. 작전지 종동..”

화면 열리고.. 다급히, 하지만 사뿐히 이동 중인 형사들의 발.
암전.. 무전기 소리.. 지직..

(장 형사) “작전 1조 옥상 종셋. 장비 세팅..”

화면 열리고.. 굳게 닫힌 철문. 그 양쪽에 대열하는 경찰 두 명. (얼굴이 보이지 않음)
암전..

(영호) “작전 2조 위치 종셋.”

화면 열리고.. 레펠용 조끼를 조이는 경찰의 손.
옥상 난간에 올라서 하강을 준비하는 경찰의 발.
옥상 난간에 올라서 하강을 준비하는 또 다른 경찰의 발.
암전..

(장 형사) “레펠. 준비 완료.”

**(고 반장)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신호에 맞춰 일시에 진입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쓰리.. 투.. 원.. 하강.”**

화면 열리고.. 점프하는 경찰의 발.
점프하는 또 다른 경찰의 발. 암전. 왜 휘리릭-이 아닌 돌돌돌- 소리가 나는가.. 싶을 때
타이틀.

2. 네일아트 샵 / 낮

한 남자(환동이)가 하와이안 셔츠를 벗는다. 민소매 위로 드러나는 문신..
팔뚝엔 주사바늘 몇 자국이 가득..
화면 멀어지면 담배연기 자욱한 네일아트 샵. (3층)
그 한 가운데 테이블에서 마작을 즐기고 있는 네 명의 남자.

남자1 (환동의 팔뚝을 보며) 니 여직도 뽕 맞나?
환동 건강검진 받았다 새끼야. 소화가 안 되가지고.
남자1 소화가 안 되면 카베진을 먹어야지 미친시끼야 뽕을 맞노..
환동 내 간접흡연으로다 몸 배렸어 씨바것들아 환기 좀 시켜..
도박하는 애들이 패가망신으로 뒤흔는 게 아니라 폐질환으로 뒤흔는 거여.
(환풍기 가리키며) 응? 저건 뭐 기능이 뭐야? 선풍기야?

순간 퍽 하고 나가떨어지는 환풍기. 화들짝 놀라는 남자들.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웬 여자의 비명 소리. “까아아~! 아 씨바...”
이게 뭘 지랄인가 창문으로 다가가 열어보는 남자1. 드르륵-
창문을 열면, 볼품없는 자세로 드러나는 여인. 장 형사.
창문 닦이용 빗줄의자에 앉아 균형을 못 잡고 바둥바둥 애쓰고 있다.
소스라치며 물러서는 남자1.

남자1 와아!! 씨바!! 와.. 이거 뭐고?
장 형사 (빙구르르 돌기까지..) 아.. 씨앙.. 잠깐만.. 잠만..
남자1 청소도구가 읍네? 창문 때 베끼시는 분은 아니고. 혹시 뭐 형사 그런 건가?
장 형사 와.. 이려고 있는데 알아봐 주니까 되게 고맙다 야. (중심 못 잡고) 아.. 씨앙..
남자1 아니 꺾백짜리 고스톱 치는 거 잡겠다고 이려고 위험하게 있어요?
장 형사 넌 고마우니까 안 잡을게, 너넨 저쪽 가 손 들고 있어. 우린 약쟁이 담당이니
게..환동아 가자~ 밥시간 됐어~

주섬주섬 돈과 소지품을 챙기며 일어서는 환동. 입구 쪽으로 향하는데

장 형사 야 도망가게?
환동 그럼 뭐? 진짜 밥 먹게? 내 1일 1식 하는데 아까 먹었어.
장 형사 여기 동선 몇 개 안 나오더라. 거 문 열고 나가면 누구 있겠니?

3. 상가 복도 / 낮

굳게 닫힌 가게 문 앞 양 옆으로 영호와 재훈.
영호는 간이 의자에 앉아 스마트 폰 게임 중.
재훈은 3단 봉을 펼쳐 보이며 범인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액션 시뮬레이션 중.

영호 가만히 좀 있어.. 일루 안 나와.
재훈 제가 범인을 잡아 본 적이 없어서.. 설레 가지고.. 하하..

4. 네일아트 샵 / 낮

환동 후... (남은 창문 쪽으로 향하며) 이거 열면 또 누구 나오는 거가?

창문을 열면,
밧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고 반장. 고정 시키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다.

환동 이걸 또 왜 내려가고 있어.. 찌기랑 일행 아니야?
고 반장 야.. 잠깐만.. 아 씨바.. (뺨뺨한 웃음이 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르락내리락..) 아.. 씨.. 쪽팔리..

그러다 눈이 마주치는 장 형사도 그 와중에 뺨뺨한 웃음이 샌다.

환동 아놔 모양새 빠지게 이게 뭐니 이게?! 밧줄 연결 했으면 점프 쪽- 해가지고
창문 외장창- 깨고 요기서 앞구르기 쪽- 하고 다이다이 좀 붙고.
수갑 딱 채우고 미란다 원칙 헉헉 거리면서 읊고.. 원래 그런 모양새 아니야?

인서트 -
환동의 대사 그대로 실현되는 상상 씬.

고 반장 돈 없어 이 새끼야. 창문 깨지면 누가 변상해?
 (어렵게 고정 시키고) 아 됐다. 됐다!
환동 (돈을 넣던 백팩에 식탁보를 구겨 넣으며) 하여간 대한민국 짬새들 가난한 거
 이거 인권 문제야. 사람이 먼저인 건데..
고 반장 거 뭐? 에어백 하시게?
환동 아시네.
고 반장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거 안 돼 이 빙신아... 진입해!!

고 반장, 3단 봉을 펴고 껌싸게 안으로 진입하는데,
으아아아!!! 소리 지르며 아직 헤매고 있는 장 형사 쪽 창문으로 몸을 내던지는 환동.
당황한 고 반장 환동을 놓치고..

인서트 -
3층 건물 창문을 깨고 날아오르는 환동.
1층 커피숍 테라스 천막을 뚫고 화단에 굴러 떨어진다.
백팩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도주하는 환동.

고 반장 환동이 날랐다 나가!!

인서트 -
해머로 문을 부수다 연장을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는 영호와 재훈.

창문으로 몸을 던지는 고 반장. 밧줄을 잡았으나 고정이 풀린 밧줄. 그대로 수직 하강.

고 반장 으아아악!!!

인서트 - 옥상. 정신없이 돌아가는 로프 틀.
탁- 다행히 짧게 묶어 놓은 밧줄.

낙하하던 고 반장, 위기의 순간 당겨진 밧줄의 손을 놓치며 카페 테이블 위에 쿵-
바닥으로 한 번 더 쿵-
깡깡대며 줄을 타고 내려온 장 형사가 달려온다.

장 형사 반장님!!
고 반장 (고통에 말이 나오지 않고.. 손짓으로..) 가.. 가..!!

5. 거리 / 낮

사람들을 해집고 달려가는 환동.
안 되는 달리기로 열심히 뒤쫓고 있는 장 형사.
어느 틈에 그녀를 앞질러 뛰어가는 영호와 재훈.
그 와중에 뭔가.. 자존심 상한 장 형사 죽어라 속력을 높여 다시 앞지르고.
그 와중에 뭔가.. 무언의 달리기 경쟁을 펼치고 있는 셋.

거침없이 달리던 환동.
가변에 정차 된 벤츠로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고 50대 여인을 끌어내린다.
까아악-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 차에 오른 환동의 뒷덜미를 잡아 다시 내던지는

50대 미친 새끼가!!

다급히 차에 오르는 50대 여인. 차량 떠나고..
재빨리 일어나긴 했으나..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환동..
추격하던 형사들도 뭔가.. 어색한.. 정적..을 깨고 다시 시작되는 추격전..

장 형사 거기 서!!!

그때 장 형사의 옆으로 50cc 오토바이 타고 가는 덩치 남.. 마 형사.
고속. 장 형사와 마 형사, 눈이 마주친다.

장 형사 너~ 이~ 개~ 새~ 끼~

정속. 그녀를 무시하고 앞서 달려가는 오토바이.
교차로를 건너려던 환동을 그대로 쳐버린다. 나뉘구는 마 형사와 환동.

나름 날렵하게 일어서 저벅저벅 환동에게 다가가는

마 형사 아니 달리기를 못하면 뭐라도 집어 탈 생각을 해야지..
 꼭~ 발로만 뛰더라? (환동의 팔을 꺾으며) 수갑 차자~
 수갑이... 어디 갔냐 또..

그때 마 형사의 목에 전기 충격기를 꽂아 버리는 환동. 지지지지직-
으어어어어--- 허무하게 기절하는 마 형사.
절뚝거리며 복잡한 교차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도주하는 환동.
안심하고 숨 고르다 그러면 그렇지 다시 뛰는 장 형사, 영호, 재훈.
빠아앙- 빠아아앙--
위태롭게 환동을 피해가는 차량들. 결국.. 뺑-
마을버스에 치여 날아가는 환동.
뜨헉- 입 벌어지는 형사들..
바닥에 나뒹구는 환동을 피하려 급히 핸들을 꺾는 차량.
그 차량의 옆구리를 치박는 또 다른 차량.
그 차량의 뒤통무니를 치박는 또 다른 차량.
꽁- 꽁- 끼이이익- 꽁- 끼이이익- 꽁-
3중 4중 5중... 추돌 차량이 늘어감에 따라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형사들의 입..
꽁- 꽁- 어느 틈에 왔는지 나란히 서서 뒤늦게 입이 벌어지고 있는 고 반장.
꽁- 꽁-.....

6. 서장실 / 낮

학생부에 끌려간 학생 다섯 명 보고 있는 듯.

서장 중간책 하나 잡았는데 전치 14주.. 죽이지 그랬냐 그냥?
 와.. 창문 깨면 돈 들까봐 빗줄에 매달려 있던 애들이..
 차는 열여섯 대 부셨어..
영호 그.. 마지막에 박은 아반떼는요.. 그냥 지가 와서 박았습니다.
재훈 맞아요, 봤습니다. 앞 범퍼 원래 찌그러져 있어 가지구 일부러 박은 겁니다.
고 반장 조용해..
장 형사 그 와중에 보험사기 들어 온 거야? 인간이 싫어진다..
마 형사 그림 열다섯 대다. 씨씨티비 확인 했어?
고 반장 조용하라고..
영호 일도 아니죠. 그 새끼 제가 처리 하겠습니..
고 반장 그만하라고 새끼들아! 뭘 아반떼.. 뭘 범퍼가 뭐? 뭐?!

입 다물고 고개 숙이는 형사들..

서장 놔 뒤. 응.. 재밌네.. 야 이거 봐라. (노트북 돌려 보여주며)
그래도 이 와중에.. 니네가 SNS스타를 배출했어.

형사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
환동을 차에서 끌어내리는 50대 여인 화제의 영상.

서장 이제 김 여사란 단어는 운전 못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용감한 시민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어. 이게 어디 쉬운 일이나?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하이파이브 하는 영호와 재훈. 어색하게 웃는 마, 장 형사.

서장 애들이 참 밝아. 아주. (형사들 엄숙해지고...) 야 고 반장.
너 반장 소리 안 지겹냐? 내가 다 지겹다 야.

고 반장

서장 (한심하게 바라보다) 강력반 최반장 이번에 승진하는 거 알지?

낮빛이 변하는 고 반장. 팀원들도 마찬가지.

마 형사 아니 그 양반 우리 형님보다 호봉수가 몇 개가 빠지는데 순서가 또 왜..
고 반장 조용해.

마 형사

서장 니들이 잔챙이 잡겠다고 밧줄에 매달려 있을 때 강력반은 아현동 조직폭력 건
수사하다 마약거래 정황까지 포착하고 두 달 넘게 잠복해서 조직원 전원
검거에 필로폰 2키로그램까지 압수. 자.. 강력반에서 마약반 일까지 처리했네?
너네가.. 왜 필요한 거냐? 직업이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닐까?

모두가... 할 말이.. 없다...

서장 니들 거취를 내가 고민 좀 해줄게. 그게 선배 된 도리지?
이 경찰 된 도리를 모르는 것들아.

고 반장 서장님..

서장 나가 봐.나가라고!

7. 복도 / 낮

마약반. 패배자들의 걸음걸이..

마 형사 드러워서 때려쳐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짐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있다 내가. 응? 그 다짐 할라고 출근하는 거 같어.
아니 제 때 먹지도 못하면서 개고생 하면 뭐하냐고!

장 형사 우리가 왜 제때 먹지 못했을까? 니가 수사비 뺑쳐서 잠수 탔으니까..
 마 형사 잠수 아니고. 잠복.
 장 형사 아 상 생각하니까 또 짹치네.
 (마 형사의 팔을 꺾으며) 나랑 면담 좀 하자 이 도둑놈의 시끼야!
 마 형사 아!! 아아아아!!!
 고 반장 하지마라. 보기 흉하다.
 장 형사 아 몰라요. 이제부터 수사비 내가 관리해요. 돈 어딴어? 야 주머니 뒤져봐.
 고 반장 그만해라 식구끼리.

재훈, 눈치 없이 장 형사 말 듣는다. 당황하는 마 형사.

마 형사 너 이 새끼 어딜 만지고..!
 재훈 아 죄송합니다. (움짤하고 빼는데.. 손에 잡힌 걸 보니 카지노 칩..)
 어? 칩이네?

순간 천진했던 자신에게 놀라는 재훈. 획- 칩을 입에 집어넣는다.

장 형사 뭐? 뭐.. 칩?
 재훈 (우물우물) 칩.. 초코 칩!

장 형사, 마 형사의 팔을 풀고 가 재훈의 입을 벌린다.

마 형사 (복화술) 삼켜... 삼켜.. 할 수 있어..

억지로 재훈의 입에서 칩을 빼 확인하는 장 형사.. 순간 멍...

마 형사 카지노 잠복이었는데 가만있기가 좀 그랬어..

점점점 얼굴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고 반장.
 조금씩 뒷걸음질 치는 마 형사.
 고 반장, 마 형사에게 달려들자 마 형사 기겁을 하고 튀지만 머리끄덩이 잡히고.
 덮쳐서 패기 시작하고 재훈이랑 장 형사 쫓아가 말리고..
 결국 장 형사에게 목을 잡혀 썩썩거리는 고 반장.

고 반장 야! 씨발... 저 썩새끼 저거 처넣어!!!
 가뜩이나 없는 수사비로 뭘 해?.. 썩썩.. 야.. 씨~ 이것 좀 놔봐!!

아주 이상적으로 개판인 모양새에서..
 아주 반듯한 무리가 반대편에서 다가온다. 최 반장의 강력반.
 상당히 대조적인 두 무리가 크로스.. 똥쓸 모양새로 최 반장과 눈이 마주치는 고 반장.
 그제야 눈치를 보고 조용히 팔을 푸는 장 형사.

썩썩 거리며 최 반장의 뒷모습을 노려보던

고 반장 야 최 반장!
최 반장 (멈칫.. 돌아보고) 나요?
고 반장 여기 반장이 둘 밖에 더 있냐?

대사 치며 저벅저벅 최 반장 앞에 가까이 대치하는

고 반장 약 냄새 두 달 전에 맡았으면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공조할 수 있었잖아. 왜 그랬어? 왜 말 안 했냐고?!!
최 반장 (숨도 안 쉬고) 잡고 싶어서요.
고 반장 ...뭐?
최 반장 잡고 싶어서 그랬다고.
 우리 고 반장님 손대시면 다 나가리 나잖아.
 지난 번 테드창 때도 봐. 한 달만 지켜보자니까 그걸 못 참고 후비는 바람에..
 아? 이번에 환동이도 시내버스가 잡았다매?
고 반장
마 형사 (분노...) 마을버스였어!!

칩을 마 형사 입에 처넣는 장 형사..

최 반장 그래.. 스쿨버스보단 낫지.. 갈게요, 우리 회식이라.
 아 그리고 여기 반장 한 명밖에 없어요.
 난 과장이잖아. (마약반 둘러보며) 너넨 축하를 안 하나.. 동료애가 없어.
 다 따라와 같이 먹게. (돌아서며) 아 소고기야! 따라 와!

눈치 없이 따라가는 재훈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채는 장 형사.
헌데.. 고 반장이 따라가고 있다.

8. 소고기 집 / 밤

일렬로 주르륵 앉아 소고기를 먹고 있는 마약반.
마주 앉은 강력반이 고기를 올리면 뒤집기도 전에 입에 넣어버리는 마 형사.

강력반1 아니 씨발 이럴 거면 육회를 시키지..
마 형사 타다끼 새끼야. 타다끼..
강력반2 놔둬라. 소고기 맛 컵라면이나 먹던 애들이 오죽하잖냐.
영호 우리 왕 뚜껑 먹어.
강력반3 하.. 너넨 자존심도 없냐?
장 형사 있겠냐 병신아.

재훈 (소주 나오는 직원에게) 이거 말고 일품진로예요. 3만 원 짜리.

그들과 다른 테이블에 독대하고 있는 고 반장과 최 반장.

최 반장 거 어깨 좀 펴시다.
고 반장 원래 거북목이야.
최 반장 후.. 그래.. 내가 동생 된 입장에서 기회 좀 드리려고 그래.

안주머니에서 쪽지 하나 꺼내 건네는 최 반장. '창청동 9-7 2층'이라 적힌..

최 반장 형, 이무배 이 새끼 하나 잡으면 경찰인생 노 나는 거잖아? 그치?
고 반장 (뭐야 이거?) 공무원이 노 나봤자 노난 공무원이지.
최 반장 아 승진 안 할 거야? 들어 봐.
이무배 중국으로 바르고 밑에 있던 홍상필이 6개월 전에 출소 했어.
근데 애가 원래 뭐하던 애야?
고 반장 깡패.
최 반장 그치. 깡패였던 새끼가 나와서 뭐하겠어?
고 반장 깡패.
최 반장 그치. 근데 이 새끼가 이무배 밑에서 무슨 맛을 봤어?
고 반장 뽕 맛.
최 반장 그치. 깡패새끼답게 나오자마자 구역 정리한다고 몇 명 담군 거 같은데
뭐 얼마 있다 시체로 나오지 않겠어? 내가 또 잘 찾잖아?
고 반장 어찌라고?
최 반장 그러고 정리를 했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무 것도 안 해.
고 반장 뭐 씨발 아무것도 안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야?
최 반장 들어 봐. 근데 이 새끼들 사무실에.. 새로운 애들이 출근을 하네?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넨다.

고 반장 (들여다보더니..) 이거 뽕쟁이 새끼들인데?
최 반장 홍상필이가 뽕쟁이들 다시 입사 시켰단 말이야.
고 반장 이 새끼들 뭐하는데?
최 반장 모른다니까. 누구 기다리는 거겠어?
내가 볼 때.. 이무배 이 새끼 곧 들어온다.
고 반장
최 반장 그 새끼 중국에서 자리 못 잡았어.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자금 딸리면 알탕이 없거든.
고 반장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주냐?
최 반장 아 동생이 기회 드린다잖아. 사실 우리 아현동 정리 덜 되서 정신없어.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대한민국 짬새 대가리 수 딸리는 거 어디 다르간?
마약반에서 이무배 먹고, 우린 달려오는 상필이네 담아 가고. 응?

물론 우리만 아는 비밀.

고 반장

....

최 반장

공조 하자매? 왜? 동생 상대로 자존심 상해요? ...아 말어.

쪽지를 가져가려는 최 반장 보다 빠르게 낚아채 주머니에 넣는

고 반장

동생으로 생각한 적 없어.

최 반장

.....

고 반장

(진지하게 고기를 집어주며) 형.

9. 이무배 사무실 앞 / 밤

- 청소부로 위장해 열심히 비질을 하고 있는 재훈.
- 전봇대 꼭대기에 한전 작업복을 입고 매달려 있는 재훈.
- 1층 ‘인력사무소’ 앞, 노무자로 위장해 건물 드나드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재훈.
분할 편집.

허름한 3층 정도의 건물 앞.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마약반의 차량 안.

고 반장과 장 형사, 뒷좌석에 영호, 저리고 있는 재훈을 가만히 본다.

장 형사

저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 안 해줄 거야 진짜?

영호

애가 너무 업 되가지고.. 엄두가 안 나네..

고 반장

놔둬. 얼마 안 가. 일단 이무배 조명 될 때까지.. 사고치지 말자.

장 형사

마 형사만 조심하면 되요. 없는 사고도 만들어 치는 새끼라.

10. 치킨 집 옥상 / 밤

비옷입고 쌍안경 들고 김밥 씹으며 2층을 감시 중인 마 형사.

옆에는 노란 액체가 든 페트병이 여러 개 보인다.

잠시 쌍안경을 거둬들이다가 3층을 보게 되는 마 형사.

때마침 옷을 갈아입던 주인아줌마와 눈이 마주친 듯한 기분.

주인아줌마, 옷으로 가슴을 가리며 획 커튼을 치고.

11. 이무배 사무실 건물 앞 / 밤

1층 ‘인력사무소’ 앞, 노무자로 위장하고 서서 건물 드나드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재훈.

그때, 앞에 와서 서는 ‘**건설’ 승합차 한 대.
우르르 승합차로 몰려드는 노무자들. 그 속에 휩쓸리는 재훈.
자긴 아니라며 뒤로 빠지려는데, 영혼 없이 밀어붙이는 사람들.
재훈, 버티며 슬픈 눈으로 잠복 차량 쪽을 보다가... 결국 차에 태워지고 출발.

12. 차 안 / 밤

차 안에서 멀어지는 승합차를 멍하니 보고 있는 영호, 장 형사, 고 반장.

장 형사 우리 재훈이.. 이젠 아파트까지 짓고 오겠네..
영호 (한숨) 반장님. 재들 이거 너무 잠잠하고.. 이무배 이 새끼 확실히 뜬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까지 밖에서 보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보죠.
장 형사 그래. 지난 번 위장 때 가스 검침복 빌려 놓은 것도 그대로 있고,
 제가 영호 데리고 들어갈게요.
고 반장 아.. 그런 것 좀 이제 그만 하려고 했드만..
영호 얼굴이 노출 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죠.

그때, 푹, 푹 하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보면, 제복 경찰이 차 앞에 서 있다.

13. 이무배 사무실 앞 / 밤

차밖에 서 있는 고 반장, 영호, 장 형사, 마 형사.
제복 경찰들 옆에 3층 주인아줌마가 서 있다.

경찰1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고 반장 저기, 우리가... (하다가 아줌마 힐끗 보고 뭉개듯) 궁출이라니까, 궁출...
경찰2 뭐라구요? 말씀 똑바로 하세요.
고 반장 (작게, 복화술처럼) 마포서... 우리 마포서...
경찰1 네, 마포서 오신 건 알겠구요. 주소 말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요.
장 형사 (참다가) 아니 우리가 왜 이 아줌마를 스토킹 해요?
아줌마 (마 형사를 보며) 그니까 왜 몰래 숨어서 사람을 감시혀?
마 형사 (넋 나간 얼굴로 아줌마에게 다가가며) 아줌마 나 정말 그 정돈 아니야...

순간 그들 옆으로 지나가는 이무배 조직원 무리와 눈이 마주치는 마약반.. 완벽한 얼굴 노출.
반사적으로 순찰차에 올라타는 형사들.

고 반장 아 갑시다! 연행 해! 거 장사 좀 해보겠다고! 동네 상권분석 하고 있었구만!
 뭐? 아줌마 스토킹? 아 씨팔 입에 담기도 무섭네. 세상 그 정도 변태가 어딴

냐?!!

경찰차에 스스로 깡겨타는 고 반장, 영호, 장 형사, 마 형사.

경찰1, 2 바로 차에 올라타고.

주인아줌마가 건물, 직원들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고 반장. 차가 출발하려는 찰나..

고 반장 (나지막한) 스탑.

경찰 1,2, 돌아보면 일제히 경찰 신분증을 보이는 고 반장, 장 형사, 영호, 마 형사.

14. 치킨집 안 / 밤

행하니 손님이 없는 치킨 집.

통유리로 된 창가 2인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약 팀.

식어빠진 치킨을 깨작깨작 뜯어먹으며 건너편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재훈 닭이.. 범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진짜 많이 잡았잖아요.. 1주일째..

마 형사 뭐 얼큰한 거 하나 시켜 먹죠.. 곧 있으면 토 나올 거 같은데.

장 형사 사장님!... 여기 얼큰한 양념소스 좀 주세요.

마 형사 (시바...) 우리가 땀 땀에 사비까지 털어 닭 잡아가며 이 짓을 해야 돼?

장 형사 (마 형사 목을 꼭 쥐며) 너 땀에!!! 너 땀에 이 개식구야!!

‘에~~ 왜들 이래요’ 두 사람 말리는 영호와 재훈.

고 반장, 그 모습 보며 한숨..

영호 반장님.. (벌떡 일어나) 저희 이거 좀 무모한 거 아닙니까?

마 형사님의 아줌마 스토킹 활약으로 인해 얼굴이 노출 됐다고 하지만
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소모적이고 (말하던 중 창밖을 보곤..)
이거 뭐 언제 뜯지도 모를.. (한 호흡에) 떴어!

반사적으로 앞드리는 영호를 따라 반사적으로 앞드리는 형사들.

서비스 닭을 내오던 주인아저씨까지 덩달아 주저앉고.

차에서 내린 이무배. 담배를 물고 건물을 올려다보며 수하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다.

우당탕탕 각자의 쌍원경, 망원렌즈 등을 들고 보는 형사들.

영호 맞지.. 맞지?

장 형사 얼굴이... 저거.. 왜 잘생겼냐.. 아닌 거 아냐..?

고 반장 문신.. (담배 피우는 손에 문신 확인) 그렇지..

저 새끼 저거.. 쌍판 갈아엎었네.. 맞다 이무배..

눈물이 나올 것만 같은 마약반.. “야 모여.”
마약반, 쪼그린 채 한테 모여 감격의 어깨동무... 하는데

주인 뭐하는 거여?

소리에 화들짝 놀라 갑자기 눈치게임 시작하는 고 반장. “일!!”하고 일어서면,
영호, “2!!” 재훈 “3!!” 장 형사와 마 형사 눈치 보다가.. 장 형사 “4!!”
퍽- 마 형사의 면상을 후려치는 장 형사. 게임종료. 자리에 앉는 마약반.

마 형사 이 시발...
주인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담 내려놓으며) 이거나 먹어. 서비스야.
마 형사 아 서비스를 왜 맘대로 줘요!
주인 서비스가 그림 주는 놈 댐이지.. 허허.. 되게 좋아하네. 먹어.

더러운 것 보듯 치킨을 보던 마약반... 순간, 중요한 건 닭이 아니거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별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면... 없다.

Cut To-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마약반. 간만에 진지..

고 반장 지체할 만 한 여유 없다. 도청 감시 수사로 전환한다.
영호 판사 영장 없이 불가합니다. 대공 업무도 아니고요.
고 반장 특수 팀에 또 밥그릇 넘길 수 없다. 자체 진행한다.
영호 불법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서장님 선에서라도 승인을 받아
야..
마 형사 야 씨발 서장이 안티야. 집어치워.
고 반장 증거 수집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법정에서 꺼내 놓을 일 없어.
장 형사 반장님.. 잘못 되면 연금 날아갑니다. 공무원한테 연금 빼면 편의점 알바지 이
게.
고 반장 연금이 날아가나 모가지가 날아가나. 내가 책임진다. 장비 따와.
재훈 (혼잣말...) 개 멋있어...
영호 후.. 어쨌든 외부형 도청기는 특수제작이라 시간이 좀 걸리구요.
카메라는 바로 따 올 수 있는데 당장 저길 어떻게..

2층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문...
유독 굳게 닫혀있는 것만 같은 철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마약반.
그때 중국집 배달부가 철문 앞에 오토바이 멈추고.. 멍동-
뻘- 하고 덜컥 열리는 문. 대수롭지 않게 안으로 들어가는 철가방...

고 반장 아저씨! 여기도 배달하죠?
주인 치킨집이야 배달로 먹고 사는 거지.

장 형사 그럼 혹시 저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
주인 저 앞 건물도 시키냐고?.. 저 앞 건물만 시켜 그나마..
고 반장 됐어.
영호 저기. 그럼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저희가 배달 좀 해도 될까요?
주인 허구헛날 인력사무소만 쳐다보고 앉았다 했더니.. 일자리 구하는구먼.
형사들 아.. 예.. 하하하.
주인 근데 어찌지? 가게 내놔어. 마지막 장사야 오늘이..
형사들 예!!? /안돼/ 왜요?
주인 왜냐니.. 1주일 보고도 몰라.. 손님이라곤 자기들 밖에 없던 거.
형사들 ...
주인 내가 왜 두 마리를 주겠어? 호식이기도 아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치킨 두 접시 바라보며 망연자실하는 와중에..

재훈 (손 번쩍) 저희가 인수할게요!

한 몸에 시선을 끌어 모으는 재훈의 패기..

영호 깜짝이야.. 가게 인수라는 게 뭐 먼저 거수한 사람 선착순으로 뽑는 거야?
장 형사 스읍.. 아니.. 그거 말이 되는 거 같은데..
고 반장 여기서 치킨 튀겨서 손님 받자고?
장 형사 재네만 시킨다잖아,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손님 온 거 본 적 있어요?
마 형사 안 오지. 손님은 안 오는데 우린 대박. 손님 없는 대박집이라니..
고 반장 그래. 그럼 돈은? 보증금. 월세. 세금. 기타 등등..
장 형사 수사지원팀에 요청해 보죠.
고 반장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장 형사 지랄하지 말라고요.
고 반장 아네. 야.. 너네 신 소리 하지 말고, 나 씻고 올 테니까 불침번 순서나 정해.
마 형사 아니.. 증거확보해서 엮을 때 확실하게 엮어야죠.
 다른 애도 아니고 이무텐데.. 돈 없어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고 반장 언젠 우리가 말이 되게 일했냐?

복잡한 얼굴로 가게를 나가려는 고 반장.

마 형사 지능수사팀 이 반장님 조만간 승진한데요.
고 반장 (멈칫..)
장 형사 또 후배야? 또?
마 형사 니미랄 그럼 우리 형님은 어디 서있으란 거야?
 정년이 몇 년이나 남았는데 설 자리가 없냐고?!

재훈 (다시 번쩍 손)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형사들

재훈 결혼자금으로 적금 넣는 거 있는데! 반장님의 설자리를 위해서!
 결혼은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형사들.. 재훈을 끌어안는다..
고 반장, ‘저것들을 확!’ 하려다 꺾 참고.. 나간다.

15. 고반장의 집 / 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고 반장.

고 반장 밥 줘.. 밥 안 먹었어. (구찌 쇼핑백을 내민다)
부인 이게 뭘데? (은근 기대하며 열어보는데 빨래거리가 가득) 으음 냄새.

Cut To -
식탁의자에 앉아 밥을 한술 뜨려다 닭볶음탕을 보고 흠칫하는 고 반장.

고 반장 닭이네?
부인 (고 반장 앞 접시 가져다 떨어주다가) 왜?
고 반장 아니.. 그래 탕이니까..
부인 (어이없게 보다가...) 낮에 최 반장 부인한테 전화왔드라.
고 반장 !!!
부인 옛날엔 가족끼리 다들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요즘 통 연락도 못했다고... 언제 밥 한번 산다고..
 아.. 맞다.. 이젠 최 과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부인, 씩크대 쪽으로 돌아서 파를 썰기 시작한다.
그러다 바들바들 점점 몸이 떨려오는 부인...

부인 동네 반장도 시간 지나니까 통장 되드라.
 내가 계모임도 중국집에서 한대면 안가..
 왜? 두반장 냄새 맡기 싫어서!!
 티비 보다가도 한국인의 밥상 나오면 바로 들어.
 왜? 최불암 아저씨 보면 수사반장 생각나서!!
 반장반장반장.. 이젠 아주 듣기만 해도 치가 떨려!!

그때,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고 반장 딸.

딸 엄마, 나 반장됐어.
부인 (벼럭) 하지 마!! 쌍!!! 반장 하지 마!!!!

썰고 있던 파뿌리로 도마를 내리치며 발악하는 부인.
한 호흡에 일어나 자연스레 외출하는 고반장과 딸.

16. 치킨집 앞

파라솔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는 딸. 맥주 마시는 고 반장.

고 반장 그게 맛있냐?
딸 응. 치킨이잖아. 우리 담탱이가 그러데. 치킨은 서민이다.
 가격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얻어먹는 거 안 미안하게.
고 반장 야, 그 정도 사줄 돈은 있어.
딸 그러니까. 좀 먹어.
고 반장 아니야. 정말 싫어.
딸 에휴... 고생이 많지?
고 반장 능력이 없으니.. 고생이 따르지..
딸 에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반장을 해?...
 반장이 얼마나 힘든 건데.. 일도 잘해야지, 반애들도 챙겨야지.
 무엇보다 돈이 좀 있어야 되드라고.
고 반장 돈?
딸 응... 가끔 애들한테 떡볶이도 싸야 되고.. 또 학급비 뺑꾸나면
 내 돈으로 메꾸고 그래야 되거든...
고 반장
딸

고 반장, 말렸다는 듯한 얼굴로 지갑을 열더니 3만원 준다.

딸 겨우 3만원? 좀 더 쓰지.
고 반장 김영란 법이라는 게 있어. 공무원은 3만 원 이상 거래가 안 돼. 혼나.

17. 서장실 / 낮

서장 앞에 죄인처럼 서있는 고 반장.

서장 야! 난 어디 뭐 펀드로 돈 굴려가면서 예산 때우는 사람이야?
 실적이 없는 팀을 무슨 명분으로 유지하라는 거야?
고 반장 그렇다고 저보고 산하지원팀으로 들어가라니요?
 거기 반장이 마 형사랑 동기예요.
서장 그러니까 마 형사랑 세트로 보내준다잖아.
고 반장 그게 더 싫어!

서장 나도 너 싫어!
 고 반장 저희들 서장님이 모아 놓은 거 아닙니까?
 서장 그래서 책임지고 해산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 반장 서장님.. 서장님 저 아시잖아요..
 서장 알다가도 모르겠어서.. 이제 그냥.. 쪽 모를래.

단단히 노기 오르고 있는 고 반장의 눈..

18. 치킨 집 / 낮

계약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주인과 부동산 아저씨.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테이블을 덮치고 기절하는 재훈.

주인 (짜증...) 아... 나.. 증말 왜 이러지?!!
 장 형사 며칠만 기다려 달라구요.. 여기 우리가 인수한다니까.
 주인 인수는 무슨.. 아무리 싸게 내놔다고 백수들 주제에...
 재훈 (웁해서 일어나) 백수라뇨!!... 저희 백수 아닙니다. 저희 엄연한 형사..

재훈의 뒷무릎을 후려치는 장 형사. 아악! 다시 테이블에 엎어지는 재훈.

주인 형...?
 마형사/장형사 (동시에) 형제예요! / 형수예요!

앗! 놀라 서로 쳐다보는 장 형사와 마 형사.

영호 (얼른) 네.. 맞아요.. 이 둘이 형제고.. 이 둘이 부부.
 온 가족이 맘 좀 잡고 살아보겠다는데..
 주인 그럼 계약금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던가.. 무조건 떼쓴다고 돼?!!

쾅!! 그때 부서져라 열리는 가게 문.
 다들 동시에 쳐다보면 근엄한 얼굴로 서 있는 고 반장.

Cut To -
 계약서에 꾸욱 도장 찍는 고 반장. 막상 걱정되는 형사들..

주인 가족끼리 같이 하면 손발도 잘 맞고 좋지.

가족?... 고 반장 뭘 말인가 보면, 눈짓 하는 형사들.

고 반장 아.. 맞습니다. 가족.. (장 형사 감싸며)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형사들 !!!
 주인 응? 뭐야... 저쪽이 남편이라더니..
 고 반장 (당황....)전남편.
 일동 !!!
 주인 (명하니 보다)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영화에서 보던 거. 와..
 그래... 뭐.. 그럼..

서둘러 나가는 주인.
 서로서로 바라보는 형사들. 간만에 의지 불타오르려 하는데..

장 형사 괜찮으시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퇴직금을..
 고 반장 어차피 이번에 이무배 못 잡으면 다 때려치우고 치킨 집 차려야 돼.
 몇 개월 좀 땡겼다 치자.
 장 형사 멋있다 우리 전 남편!
 고 반장 오늘부터... 퇴근 없다.

마약반 으이썩!

19. 몽타주

휘리릭- 날아가는 무언가. 이무배 건물 2층 창문에 철썩 달라붙는 도청장치.
 뭔가 창문을 열어보는 조직원.
 한전 복장으로 전봇대에 매달려있던 재훈, 휘리릭- 시선을 피한다.

카메라, 도청기가 달린 창문을 지나 실내를 훑는다.
 작은 티비 한 대. 아무렇게나 놓인 소파에 아무렇게 늘어져
 조용히 티비나 보고 있는 여덟 명의 조직원들. 평범한 동네 청년들의 모습.

닭 집. 노트북과 연결 된 도청장치의 주파수를 맞추는 장 형사.
 소리를 확인하는 고 반장. 보드 판을 조립하고 있는 마 형사.

이무배 건물. 철문을 열고 나오는 조직원1,2. 주차 된 구형 벤츠에 오르고,
 테이블을 닦으며 주시하던 마 형사 무전을 치면,
 골목. 마약반 차량에 대기하고 있던 영호가 벤츠를 따라 붙는다.

닭 집. 각종 자료들을 프린트하고 있는 마 형사. 나름 프로페셔널한 모습.
 자료와 이무배의 사진들을 보드 판에 붙이려는데,
 손님 두 명이 들어온다. 짹짜게 도청 스피커를 끄는 마 형사.
 주방에서 달려와 재료 준비가 덜 됐다며 손님을 돌려보내는 고 반장.

자료들과 사진을 보드 판에 붙이고 있는 장 형사. 거의 채워졌을 무렵..
산악회 복장의 손님 여섯 명이 들어온다.
다 세운 도미노 무너트리듯 와르르 자료들 밀어버리는 장 형사.

구겨진 자료들과 사진들을 클립에 끼워 넣고 있는 장 형사와 마 형사.
그때 거나하게 취한 회사원 단체 팀 우르르...

20. 치킨 집 안 / 밤

흥분한 고 반장.

고 반장 안온다매! 안 오대매 새끼들아!! 오늘만 아홉 팀이나..
장 형사 열세 팀.
고 반장 열세 팀이나 들어왔어! 오라는 새끼들은 안 오고!
마 형사 개업빨인가.. 근데 치킨 누가 튀기지? 그니까.. 재네가 주문을 하면..
장 형사 이진 병신이야 뭐야? 다른 가게에 시켜서 가져가면 되지.
마 형사 아~ (잠시 생각..) 아니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료 준비
 한다고 손님 계속 보내. 이게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야? 그냥 치킨을 팔자.
고반장/ 장형사 닥쳐!!!
고 반장 후.. 근데 저 새끼들은 왜 저렇게 닥치고 있는데니?
 오늘 뭐 녹음 된 거 있어?
장 형사 하루 종일 뭐 치먹는 소리랑.. 텔레비 소리..
고 반장 땡보직일세. 낮엔 어디 가디?
영호 마트요..
고 반장 구입 품목은?
영호 닭 가슴살..
고 반장 후.. 건강하게 약빨겠다는 거야 뭐야.. 아.. 이런 씨..
스피커 이런 씨발랍아!!

순간 놀라 도청장치로 시선을 돌리는 마약반.

고 반장 야 문 잠가.

재훈이 문을 잠그고 마약반 도청장치로 모여 앉는다.

21. 이무배 사무실, 치킨 집 교차 / 밤

리모컨을 벽에 집어 던지는 조직원1.

소파에 누어져 있다가 어슬렁 일어나 조직원1과 마주 서는 조직원2.
4대 4로 대치하며 긴장감이 흐르고..

조직2 사장님이 닥치고 있으라 했는데? 왜 이렇게 흥분해? 나 좋아해?
조직1 홀수 날은 우리가 채널권 갖기로 했냐 안 했냐?
조직2 했지. 우리가 짝수.
조직1 그럼 씨발 옥수수티비나 보든지 할 것이지 그렇게 예의 없이 채널을 돌리면
 내가 뺏이 도냐 안 도냐?
조직2 60초 후에 공개한다잖냐.. 판 데 뭐하나 잠깐 봤지.
조직1 나이트 먹겠다고 오락실부터 쭈시고 들어가는 코스 내가 모르냐?
 이 양아치 새끼야!
조직2 양아치..? 니가 아주 웃는 모습이 예뻐지고 싶구나?
 아가리 찢어달라고 떼쓰는 거 보니까!

-답 집

장 형사 이 새끼들 말 잘하는데..?
고 반장 심지어 재밌어.

-이무배 사무실

조직1 나는 눈깔이 잘 안 빠져 겁대가리가 없으니깐 라식 한 번 하자.
 손가락으루다 눈깔 한바탕 오지게 긁어 줄라니까!
조직2 관두자 시발라마 내가 강력반으로서 체면이 있지 약쟁이들이랑 뭐하냐?
조직1 마약반이다 이 양아치 호로새끼야!

-답 집

뭔 소리야.. 이 새끼들... 강력반... 대 마약반.. 이야?

-이무배 사무실

조직2 그레 시발 니들 마약반! 약쳐맨들고 처맥이고 조잡스런 거나
 하면서 연봉은 억대로 가져가고 외제차 몰고!

-답 집

마 형사 이.. 이 개 시양...

-이무배 사무실

조직1 그게 기술직이라는 거다 병신아. 기술직이 우대받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냐?
조직2 사시미 한 번 넣어줄까? 기술력 한 번 느껴보시게?
조직1 말 잘했다. 니들 강력반? 돈 존나게 조금 가져가는 척하고
 위험수당으로 몇 천 씩 챙기는 거 우리가 모를 거 같냐?

-답 집

형사들, 뭔가... 의욕상실.. 사기저하... 빠침..

마 형사 위험수당... 몇 천.. 우리는 몇 천 원 받나? (일어서는)
고 반장 뭐하냐?
마 형사 저 개새끼들 잡아 처넣게요.
고 반장 뭘로?
마 형사 그... 뭐.. 모..욕 죄?
장 형사 뭘 모욕?
마 형사 그.. 직업.
장 형사 뭐 그걸로 벌금 때리게?
고 반장 이 새끼들 또 왜 조용해졌어..

-이무배 사무실

일렬로 대열한 조직원들. 그 앞에 무섭게 서있는 홍상필.

상필 입 다물고 있는 게 어려웠구나? 텔레비가 재미없어?
 참여를 해야 재미가 있지. 문자 투표를 하라고.. 모가지 빼.

언어맞기 좋게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조직원들.
첫 번째 조직원부터 죽빵을 날리려 크게 흑을 그리는 상필. 치려다 멈칫.

상필 이걸 언제 다 치고 있냐.. (소파로 향하며)
 두 군데 이상 터질 때까지 각자 쳐.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각자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치는 조직원들. 퍽퍽퍽----

-담 집

고 반장 오우.. 합리적인데?

-이무배 사무실

두세 군데씩 피가 터진 조직원들. 마약반 대 강력반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살기 어린 눈빛들.

상필 (소파에 누어지며) 옛날에 주먹 쓸 땐 서열도 확실하고..
 참 낭만적이었어. 그치? 오늘 낭만적으로다 서열 좀 가려 보자. 옷통 까라.

평범하게 보였던 조직원들.. 옷통을 까니.. 군살 없는 근육질에 온갖 상처와 문신..

상필 준비... 시~~ 작!!

죽일 듯 서로에게 달려드는 마약반과 강력반.

-닭 집

고 반장 하이고.. 애기들 또 할퀴고 물어뜯고.. 앵앵거리네..
마 형사 그래도 꽤 타격감이 느껴지는데?
장 형사 초딩들 싸움이 원래 더 요란해.

-이무배 사무실 안

조직원들의 개싸움.. 이라기엔 어마무시한 무공의 소유자들..
어디서 본 적도 없는 화려한 액션이 이어지고...

-닭 집

스포츠 경기 보듯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마약반.

고 반장 야 상필이 왜 중계 안 하나..
상필(소리) 그만!! ...일어서.
마 형사 어디가 이겼어..? 어디야?
재훈 (주먹을 꼭 쥐고) 마약반.. 마약반.
상필(소리) 결과에 승복하자. 마약반 승.

마약반 이겼다고 주먹 쥐고 좋아하다가... 뺄쫓해지는 마약반.

상필(소리) 야 너네가 치킨 싸라.
고 반장 (!!) 야 문 열어!
상필(소리) 니가 갔다와 새끼야!
고 반장 (!!!) 야 문 닫아! 불 꺼!

그때,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앞집 3층 주인아줌마.

아줌마 여 새로 오픈했나본디.. 쓰레기 요 길가에 버리지 말고..
 (하다가 흠칫) 뭐.. 뭐여?.... 니... 니들이 또 왜... (전화기 꺼낸다)
고 반장 아줌마, 아줌마 잠깐!
아줌마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고 반장 (전화기 빼앗아 끊더니) 저희가 여기 인수했다구요. 이 치킨 집!

3층 주인아줌마.. 멍하니 고반장 보다가 그제야 빙 가게를 둘러보더니..

아줌마 아~ 그래서 그렇게 요 근처를... 아이고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형사들 하하하하
아줌마 그럼 내가 팔아줘야지.. 어디 한 마리 튀겨와 봐..
고 반장 저기.. 근데 저희가 아직 닭이 없어서..
아줌마 닭 집에 닭이 없어?

고 반장 네 뭐.. 종종 그러기도 해요. 개업한지 얼마..

그때,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건장한 남자들.. 순간, 괜히 시선 피하는 형사들.

아줌마 아이고~ 2층 총각들 닭 먹으러 왔나벼? 근디 닭이 없다네? 닭집에.

22. 닭 집 / 낮

테이블에 비닐봉지 쏘는 고반장.

닭, 튀김가루, 밀가루, 무 등등이 쏟아져 나온다.

고 반장 자... 누가 튀길래?

영호 반장님.. 왜 이러세요?

고 반장 다시 오세요 했더니 다시 올게요 하잖나. 난 그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영호 재네가 가져가는 건 의미도 없잖아요.

고 반장 무를 빼고 주면 돼. 놈들이 닭 가지고 들어갈 타이밍에 맞춰 따라 들어가
무를 건네며 실내 구조부터 스캔한다. 서비스로 한 마리 더 갖다 줘도 되고.

마 형사 그치. 서비스는 주는 놈 맘이니까.

고 반장 그래. 마 형사! 니가 튀겨.. 너 수원 살잖아.. 통닭의 성지.

마 형사 (버럭) 수원이 왜 통닭의 성지니까? 수원하면 갈비지.

장 형사 마 형사 부모님이.. 수원에서 왕갈비집 하시잖아요.

고 반장 그럼 장 형사가 해.

장 형사 (씨익-) ..정말?

영호 지난 번 야유회 갔을 때 장 형사님이 끓였던 찌개 맛 잊으신 거예요?

다들, 생각이 났는지 급 표정 구겨진다.

고 반장 기억 나.. 그 음식물 쓰레기.. 그럼 너.

영호 아 저는 미행 전문이잖아요.

재훈 (고 반장이 자신을 보자) 저는 종갓집 차손으로서 주방에도 한 번
들어가 본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다음 생에...

고 반장 에이 씨... 아 몰라 다 튀겨봐!!!

23. 몽타주

저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치킨을 튀기는 형사들.

집밥 백선생 레시피 보고 반죽 만드는 영호.

엄마한테 물어보는 재훈.

영호 없는 얼굴로 그냥 대충 튀기고 있는 장형사.

제법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형사.
테이블 위에 치킨 접시가 차례대로 놓인다.

24. 치킨 집/ 낮

치킨을 들고 요리조리 살피더니 조심스레 먹어보는 고 반장.
어떤 건 냄새만 맡고 그냥 내려놓고, 어떤 건 뺏어내고, 피가 푹푹 떨어지는 치킨도 있다.
그러다 마지막 접시의 하나를 맛보는 고 반장. 놀라는 눈.

고 반장 뭐야..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마 형사 전데요.
장 형사 그럴리가?... (먹어보더니 놀라) 니가 미쳤구나!
영호 (역시 놀라) 말도 안 돼..
재훈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고 반장 오케이~~~됐어!!!~~~ 마형사 당첨!!

이야!!~~~~ 하고 좋아하는 마형사. 그러다 문득 표정 굳어지더니..

마 형사 잠깐만.. 뭐 하라고? 뭘 해요? 반장님!!... 형님!! 아아 쌍!

25. 치킨 집 / 낮

팔랑- 문이 열리며 남녀 손님 두 명이 들어온다.
긴장하며 침을 꿀꺽 삼키는 형사들.
고 반장, 장 형사 향해 눈짓.

장 형사 어...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긴장하고 있는 마 형사, 고 반장.

고 반장 (마 형사를 토닥이며) 괜찮아.. 고대로만 해.. 완벽한 후라이드였어.
남손님 양념치킨 주세요.
고 반장 !!!
마 형사 야... 양념... 무슨 양념?
고 반장 세상 치킨의 반은 양념이란 사실을 망각했다.. 아무 양념이나 해..
마 형사 제가 아는 양념이라고는 우리 가게 왕갈비 양념밖에..
고 반장 그거하면 되겠네!!! 왕갈비!!

마 형사.. 가만히 생각하다.. 이내 결심한 듯..

간장 붓고, 파 썰고..

Cut To -

고 반장의 손에 들린 갈비양념치킨. 홀로 나간다.

남손님 (냄새 쿵쿵 맡으며) 양념이 특이하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고 반장 그.. 수..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여손님 수원왕갈비통닭?

남자, 가웃하더니 치킨을 들어 입에 넣는다.

침을 꿀꺽 삼키는 고 반장, 마 형사, 장 형사.

순간, 남자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는다.

그럼 그렇지.. 고개를 푹 숙이는 마 형사. 그때..

남손님 오... 존맛!!!

여손님 어디.. (먹어보더니)...으음~ 대~~~~박!!!

손님들, 휴대폰 꺼내 치킨을 찍기 시작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는 고 반장.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이다.

다리 풀리는 마 형사, 창밖으로 동그라미 모양 해 보이는 장 형사.

영호와 재훈도 창을 통해 보며 기뻐하고.. 그렇게 무언의 기쁨을 나누는 형사들..

그러다...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한데...

26. 치킨 집 / 낮

‘수원 왕갈비통닭’ 간판.

식당 안은 그야말로 손님들로 발 딛을 틈이 없다.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서빙을 하고 있는 장 형사와 고 반장.

고속.. 넓은 사이즈에서 천천히 가게 한가운데 서있는 고 반장에게로..

천천히 돌아보는 고 반장.(두산 ‘사람이 미래다’ CF 느낌)

고 반장 (마음의 소리)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근데 여보.. 나.. 부끄럽지가 않아..

당신 참 고생 많았잖아.. (다가오는 카메라 보며) 우리 이제 외식도 좀 하고..

멋진데 구경도 가고.. 그렇게 살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치킨이 미래다. 수원 왕갈비 통닭.

다 튀겨진 치킨을 양념그릇에 탁 털어 넣는 마 형사.

빠르게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한다.

한쪽에서 양파를 썰고 있는 재훈.. 눈물이 줄줄줄 흐른다.
다급하게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 고반장.

고 반장 재훈아, 나와서 무랑 소금 좀 담아..
재훈 이거 다 썰고 마늘 다져야 됩니다!
고 반장 (버럭) 아, 그러니까 재료 손질은 미리미리 해놔야하지.
 무슨 애들이 직업정신이 없어!
재훈 제.. 직업은...

다가와 계산하는 손님.
고 반장, 돈 통 열면 잔뜩 쌓여있는 현금.. 절로 웃음이 번진다.

고 반장 (무전기 들더니) 영호야! 잠깐 들어와서 소금 좀 담아!

27. 고반장 집 / 밤

피곤에 찼던 얼굴로 들어오는 고 반장. 손에는 구찌 쇼핑백이 들려있다.

고 반장 나 밥 안 먹었어.
부인 (노려보며) 안 먹긴, 씨..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건네는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다가.. 어맛!!! 하고 집어던진다.

부인 뭐.. 뭐야 저거..
고 반장 자기만 없다매...
부인 (다가가 가방을 꺼내더니) 아... 아니 그렇다고 이 비싼걸....

하며 가방을 열어보다가 놀라서 어맛!! 하고 다시 집어 던진다.
썩악 바닥에 흩뿌려지는 만 원짜리들.

고 반장 일 잘한다고 보너스 받은 거야..
부인 (명하니 고반장 보다가 갑자기 옷 단추 풀며) 잠깐만 기다려... 빨리 씻을게..
고 반장 (당황) 씻다니... 여보.. 무슨 말이야 그게! 여보!!

28. 치킨 집 / 낮

치킨 산처럼 쌓아놓고 손질하는 마 형사.. 능숙하다.
양파 썰는 재훈. 손이 안 보이고..
포크 두개씩 냅킨으로 묶고 있는 장 형사. 기계적으로 손만 움직이며 고 반장 쪽을 본다.

고반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있는 허 피디와 카메라맨.

허 피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출연 시켜 줄 테니까 얼마를 달라..
 막 가게에 연기자들 깔고... 저희는 그런 거 일체 없구요.
고 반장 음...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티비에 내보내겠다 이 말입니까?
허 피디 가게뿐이겠어요? 사장님, 사모님.. 저기 주방장분 얼굴까지
 대문짝만하게 전국으로 짹악!!!!

29. 치킨 집 앞 / 낮

문이 열리고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허 피디와 카메라맨.

허 피디 아니.. 저기!.. 저희 시청률도 높고.. 잠깐만요!.. 저기 잠깐..

 황 하고 닫히는 문.

허 피디 (황당한...) 허... 모욕감을 주시네.. 감히.. 방송국 피디한테??

30. 치킨 집 / 낮

마 형사 아쉽다.. 우리 갈비 집은 30년을 했어도 텔레비에 못 나가봤는데...
장 형사 이런 미친 식구... 야! 잠복중인 형사 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
마 형사 얼굴이야 모자이크 처리 해 달라면 되지.
장 형사 뭐얏?... (하다가.. 고반장보며) 그건 좀 괜찮은데요?
고 반장 이것들이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영?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 집 차리던가, 새끼들아!!!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고반장.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리자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는 고 반장.

고 반장 (친절하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통닭입니다.

31. 마약반 차량 안 / 밤

사람들로 북새통인 모습이 치킨 집 통 창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를 움켜쥐고 차에 올라타는 영호.

영호 아 씨... 이제 치킨 냄새만 맡아도 설사가 나네. (하다가 눈이 번쩍!)

이무배의 건물 앞에 검은색 체어맨이 두 대 서 있다.
서둘러 망원렌즈로 살피는 영호. 체어맨의 번호판이 가려져 있다.
찰각, 찰각,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영호, 무전기를 집어 든다.

영호 (다급) C하나 출연 의심! C하나 출연 의심!
 (답 없고) 여기요.. 사장님! 뜯 것 같다니까요!! 사장님!!

여전히 대답 없는 무전기. 영호, 전화기를 꺼내 고 반장에게 전화를 건다.

32. 치킨 집 / 밤

정신없이 바쁜 치킨집 안.
카운터 위에 고 반장, 장 형사 휴대폰.
‘영호’라는 이름이 뜯 채 진동 중인 고반장의 핸드폰.
하지만 접시를 두 개씩 양 손에 들고 날아다니고 있는 고 반장과 장 형사.
테이블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재훈.
닭 자르고, 튀기고, 버무리고 정신이 없는 마 형사.

33. 마약반 차량 안 / 밤

영호,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그때, 이무배의 건물 안에서 우르르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고.
사진을 찍지만 수하들에 가려 차에 올라타는 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내 출발하는 체어맨 두 대.

34. 도로 / 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체어맨 두 대와 조금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가는 영호의 차.
그런데... 양 갈래 길에 진입하면서 둘로 갈라지는 체어맨 두 대.
영호, 당황해 우왕좌왕하다 왼쪽을 따라 가려는데 신호 바뀌고,
다급히 오른쪽으로 꺾으려다 옆에 차량과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
창문 열고 쌍욕을 해대는 운전자.

35. 치킨 집 / 밤

이리저리 지쳐 쓰러져 있는 마 형사, 장 형사, 재훈, 고 반장
그때.. 힘없이 들어오는 영호.

고 반장 너 이 새끼.. 어딴다 이제 기어들어와?
장 형사 맥주 따를 사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어?
마 형사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다니까.
영호 (분노의 눈으로 노려보더니) 누가 일하고 누가 놀았는데?!!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마 형사 바쁘니까. 우리도 지금 처음 왔잖아.
영호 범인 잡으려고 치킨 집 하는 겁니까? 치킨 집 하려고 범인 잡는 겁니까?
장 형사 술 먹었냐? 왜 화를 내고 그래?
영호 이무배 뺏습니다.
고,장,마 (벌떡 일어나 앉더니) 뭐?/ 이무배?/ 그래서?
영호 쫓아갔지요.. 혼자서... 언제 어느 때 피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저 똥차를 죽어라 밟고... 근데요.. 양 갈래 길이 나와요.
 어느 쪽이 이무배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시청방면인지 분당방면인지..
 그 참담하고 막막했던 심정을 아세요? 아시냐구요!!!!
마 형사 양념이나 후라이드냐네..
장 형사 닥쳐!
고 반장 그래서?
영호 (버럭) 뭐가 그래서예요, 둘 다 놓쳤지!!!
마 형사 이 새끼가 근데... 그게 뭘 자랑이라고. 야 너만 좇뱅이 치냐?
 (웃웃 벗어 던지고 화상 자국 보이며)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씨발 얼마나 쓰라린 줄 알어? 토막 살인범을 잡아도 모자를 판에
 매일 닭이나 토막 내고 있는 이 심정을 아냐고!!
재훈 하루에 양파4자루, 마늘 5접, 파 33단씩 까보셨습니까? 매일이 화생방입니다!
장 형사 234만원.. 오늘 매출액이야. 한 테이블당 3만원이라 치자..
 과연 몇 개의 테이블을 세팅하고 치웠을 거 같니?
영호 그러니까요.. 장사해서 돈 벌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 잘 되는데?!

고 반장의 무거운 한숨..

36. 호텔 스위트 룸 / 밤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는 이무배.
마주 앉은 상필과 정 실장. 자리에 앉아 있는 이무배, 홍상필, 정 실장.

상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정 실장은 이무배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상필 아니.. 중간상 섭외하라고 몇 번을 말하지 내가?
정 실장 요즘 테드창 쪽에서 너무 겁주고 다니는 바람에 인력이 떨어져..
상필 나도 지금 겁주고 있는 건데? 그걸 또 못 느꼈네. 응?
 내가 평생을 험박만 하고 살았는데 그걸 몰라주고, 꼭 어디 하나 잘린 다음에
 나만 존나게 모진새끼 만들고, 너 나 욕할 자격 없는 거야 그러면.
정 실장 죄송합니다. 믿고 거래할 친구 하나 픽스해 댔었는데.. 이놈이 일거리 없다고
 알바 좀 하다가.. 하... 원래 잘 안 잡히는 놈인데 버스에 치여 가지고..
상필 하.. 웃을 뻔했잖아 개새끼!
 믿고 거래할 만 한 새끼가 대한민국에 정규직이 없어서 알바를 해?
정 실장 말씀드렸다시피 테드창 때문에 그게 좀..
상필 그놈의 테드창, 테드창!!! (발목에 찬 회칼을 꺼내 들고)
 뭐 호텔에 온 김에 한숨 자고 싶지? 일루 와 쌍놈에새끼야 자장자장 쭈셔줄
 께!
이무배 상필아... 그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흉물스럽다, 야.
상필 그.. 테드창 때문에 그게 좀..
이무배 그놈의 테드창.. 테드창.. (손 내밀고) 이리 내.

공손히 건네는 상필. 그 칼을 받아 그대로 상필의 종아리를 그어 버리는 이무배.
신음을 토하며 주저앉는 상필. 순식간의 칼부림. 겁에 질린 정 실장.

이무배 (손등에 약간 튀긴 피 한 방울...) 야 물티슈 가져와.
상필 (절뚝이며 이동) 네..
이무배 (정 실장 보고 장난스레 웃으며) 요거 별로 안 무섭지? (선희에게 칼을 건네
 며) 선희야, 재 그냥 다리 잘라.

칼을 받아들고 상필에게 향하는 선희.
물티슈를 떨어트리고 뒷걸음질 치는

상필 잠깐.. 선희씨, 잠깐.. 아 쌍.. 왜 나를 잘라?!

눈을 부릅뜨고 선희를 공격하는 상필.
단번에 상필을 쓰러트리려 발목을 분질러 버리는 선희.

상필 으어어어억!!!!!!
선희 어디까지 자를까요?
이무배 표시 해놔잖아. 칠부바지 입으면 안 보일 정도.

회칼로 자를 부위를 재보는 선희.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던 정 실장 바닥에 납죽 엎드린다.

정 실장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회장님!!
이무배 어떻게?
정 실장 그.. 그.. 중간상 건너뛰고 바로 거래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유통계의 연금술사 아니십니까! (눈치 살살 살피며)
 회장님 사업 수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37. 치킨 집 / 낮

치킨 가격표.

고 반장 16000원 앞에 1을 3으로 바꾼다. 36000원

고 반장 하... 치킨은 서민이거늘..
장 형사 설마 이 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
마 형사 토종닭으로 튀겨도 이 돈은 못 받지.

Cut To -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치킨 집. 씨발씨발 거리며 닭 튀기고 있는 마 형사.

여기저기 치킨 놓고 인증샷 찍는 사람들.

정신없이 서빙중인 고 반장을 졸졸 따라다니는 영호.

영호 (고 반장에게) 차량은 예상했던 대로 대포차고 흥 상필 이 새끼
 호텔 사우나 말곤 가는 데가 없는데 제가 거기까지 좀 붙어 볼까요?
고 반장 이따가, 이따가.. (손님 보며) 거기 오백 몇 잔이라 그러셨지?

고 반장, 가버리고 멍한 영호에게 다가오는 재훈.

재훈 황제치킨, 럭셔리 치킨으로 소문나서 인증샷, 허세샷 찍으러 옵니다.
장 형사 심지어 일본 럭셔리 관광객들에겐 필수 방문 코스란다.

그때, 문 열리며 관광깃발 든 일본사람들 우루루 들어오면..

장형사, 재훈 이랏샤이마세!!.... (달려가고)

Cut To -

Insert. 'Break Time'

주방 앞쪽에 장비를 깔고 양파를 채 썰고 있는 재훈. 달인 수준.

한쪽 테이블에서 '일일 50마리 한정 판매'라 쓰고 있는 고 반장.

다른 팀원들은 지친 얼굴로 나란히 앉아 이무배네 사무실을 보고 있다.

재훈 온다 하고 안 오는 게.. 이게 되게 섭섭한 거구나..
 마 형사 저 새끼들 아주 치킨 알기를 우습게 아는 새끼들이야!
 무슨 계절음식 취급하잖아! 여름에 민어 먹고 겨울에 대방어 먹어도,
 치킨은 매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재훈 (양파에 눈물 흘리며) 웬소!
 마 형사 그냥 개업 떡 못 돌려서 미안하다고 개업 닭이라고 가져다 줘!
 맥주랑 콜라랑 잔뜩! 거기다 약 타 맥이고 재우자고.
 언제 실내 구조 스캔하고 언제 카메라 설치해? 그냥 한 방에 끝내!
 영호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약을 쓸니까.. 경찰 된 도리가 있지..
 장 형사 아니야. 저 전립선 환자가 간만에 옳은 말 했네.
 저런 애들한테 뭐 경찰의 도리를 다하면서 작업해?
 재들은 뭐 범죄자의 도리를 다해서 죄 짓는 거야?
 영호 죄를 아직 안 지었다니까요, 그거 잘못 되면 우리가 구속이예요.
 마 형사 이미 기름 냄새에 구속 됐어 난! 이 짓거리도 어차피 승인 못 받은 거 아니
 야?! 못 할 거 뭐 있어? 약 먹여 그냥!

참다 참다 별떡 일어나는..

고 반장 이 새끼들이.. 야! 장,마! 그래도 짬밥깨나 먹었다는 것들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제 경찰 입에서 나올 소리야?!
 닭 장사를 하면 닭 집 사장이고 닭 장사 하는 척을 해도 형사는 형사야.
 근데 양아치 짓을 하면..! 그건 그냥 개 호로새끼야..
 니들이 개 호로새끼냐? 그럼 재들처럼 돈이라도 잘 벌든가.
 박봉에 세금 낼 건 다 내고 있는 주제에.. (잠시 생각...)
 말하다보니까 존나 이상하네, 이거..

다들 숙연해지는 그때... 영호의 핸드폰 진동.. 조심스레..

영호 저.. 반장님.. 서장님 호출인데요..
 고 반장 ...나?
 영호 전원 소집....

38. 마약반 사무실 / 밤

일렬로 서서 고개 숙인 채 서 있는 고반장, 마형사, 장형사, 영호, 재훈.

서장 니네 지금 영기는 거냐, 아니면 말을 잘 듣는 거냐?
 고 반장 ...업무 보고서는 계속 제출한 걸로...
 서장 그래, 업무 보고서! (서류철 넘기며) 잠복, 잠복

(고반장 보며) 니들이 뭐 한다고 매일 잠복이야?
 재훈 (억울한 얼굴, 뭐라 하려는데) 그게 말입니다.
 영호 (눈 찡긍하며 재훈의 팔을 잡아 제지하고)
 서장 (서류 넘기며, 코웃음) 잠복, 잠복, 생닭 50마리, 절임 무.. 이걸 또 뭐야?
 마/장 (움짤해서 눈빛 교환하는)
 고 반장 (얼른 주문서 뺏어오며) 이거 뭐 잘못 들어간..
 서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친절하게 내가 직접.
 이번 인사개편과 동시에 현 마약반은 해..

하는데.. 지이잉~ 전화 진동 오는 소리가 들리고,
 몸을 옆으로 꼬며 움짤하는 고 반장.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끈다.

서장 (다시) 그래, 다시. 이번 인사개편 실행과 동시에 현 마약반은 해..

또 다시 지이잉 하고 울리는 전화 진동.

고 반장 (전화기 꺼내며) 죄송합니다. (끄러는데)
 서장 받아, 받아, 새끼야! 자꾸 말 끊지 말고..

고 반장, 눈치 보며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는다.
 서장의 언짢은 기색에 고개가 더 숙여지는 마 형사, 장 형사, 영호, 재훈.

고 반장 (소리 죽여)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치킨인가,
 수원 왕갈비... (하다 놀라 목소리 커지며) 네? 어디요?

설마?... 일제히 고 반장을 보는 형사들.
 고 반장, 그들을 향해 고개 끄덕여주면... 일제히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형사들.
 한꺼번에 밀고 나가는 통에 뒤로 밀리다 넘어지는 서장.

39. 인서트 몽타주

- 콰콰광- 먹구름 드리우는 하늘에 번개 번쩍.
- 숭숭숭- 누군가의 손 위에서 돌아가는 절단용 칼.
- 탁탁탁- 도마 위 사정없이 절단 되는 생닭.
- 찰르르- 고소하게 튀겨져 올라오는 치킨.
- 취히이- 하얀 거품이 차오르고 있는 생맥주 용 페트병.

40. 치킨 집 / 밤

페트병에 맥주를 담고 있는 장 형사의 뒷모습.

영호와 재훈, 장비를 챙겨 가방에 넣고 위장복을 착용하고 있다.

고 반장 (무전기 스위치로 신호주며) 신호주면 바로 차단기 내려.

재훈 네!

고 반장 장 형사가 창문 반대편 사무실과 복도에 도청기 설치.

영호가 실내 구조 스캔 뜬다. 내가 시선 돌리고 카드 단말기
신호 불량으로 시간을 끌 거야.

재훈 오.. 그거 제일 짜증나..

고 반장 1분 안에 쇼부치자.

영호 네.

고 반장 만약의 경우 마 형사랑 나. 대기조가 치고 들어간다.

재훈 저도 갑니다!

그 때, 배달 포장된 치킨 박스를 들고 주방에서 나오는 마 형사.

고 반장 (놀라) 벌써 튀겼어?

마 형사 (어색한) 아... 네... 그, 급한 거니까 얼른...

장 형사 웬일이래.. 개식구가 빠릿할 때도 다 있네..

어색하게 웃는 마 형사. 헌데 장 형사도 좀 어색하게 웃는..

인서트 - (일각)

차 안에서 카메라로 줌을 당겨 '수원 왕갈비 통닭'을 찍고 있는 허 피디.

입가에 열린 미소 보이고. 전화벨 소리 진행.

다급히 전화를 받는 고 반장.

고 반장 지금까지 이런... 네... 아, 그거 방금 출발했어요~

41. 치킨 집 앞 / 밤

비가 쏟아진다..

형사들.. 학이 날개를 펼치듯 대형을 갖추고.. 묵직한 걸음을 내딛는다..

각자의 위치로.. 차례차례 흩어지는 모습.. 엑스맨의 쿼 실버와 같은..

홀로 남은 고 반장.. 양손에 쥔 치킨봉지를 움켜쥐다..

42. 이무배 사무실 앞 / 밤

찌이이이- 벨 소리.

우비 입은 채 긴장한 얼굴로 서 있는 고 반장.

문 옆에 몸을 낮추고 있는 영호, 장 형사, 후... 심호흡을 한다.

끼이이익... 낡은 경첩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는 사무실 문.

순간, 안에서 나오는 작업복의 3층 주인아줌마. 반갑게 그들을 맞이한다.

아줌마 **아 왜 이렇게 늦어! (안에 대고) 치킨 왔어. 먹고들 허자고..**

고 반장, 당황한 얼굴로 문을 활짝 열면 웅한 내부.

청소업자들이 청소를 하는 중이다.

고 반장 **여기... 여기 있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아줌마 **오늘 이사 나갔는디? 왜? 아 돈. 잠깐만.**

고 반장의 눈빛이 아늑해져갈 무렵... 팻! 하고 나가는 전원.

어둠 속에 멍... 하니 서 있는 형사들.

43. 치킨 집 / 밤

각자 떨어져 뉘 놓고 앉아 있는 마약반..

고 반장, 되레 초연한.. 앞에 놓인 치킨박스를 열어.. 다리 하나들어.. 뜯는다..

고 반장 **이상하게.. 우리 집 닭 같지가 않네..**

영호 **라꾸라꾸 펴놓고 자면서 24시간을 붙어 있었는데..**

왜 하필 오늘 전원 소집이냐고!!

재훈 **혹시 서장님하고 이무배하고 한 패 아닙니까?**

고 반장, 멈칫했다가 더 크게 아하하하하 웃어대고.

장 형사, 재훈이 까고 있던 양파를 집어 던지며 화를 주체 못하고.

마 형사 **그만해. 상처 나면 양념 맛없어져.**

장 형사 **(던져대며) 맛있으면 뭐하게? 이무배도 없는데 맛있으면 뭐하게!**

고 반장 **(웃다가 정색하더니) 내가 말했나? 우리 곧 해체된다고.**

서장님 오늘 전달 사항이 그거였다고.

일동 **.....**

고 반장 **그래도... 우린 식구다.. 아니.. 식구였다... 옷자!! 더 나빠질 일도 없잖나!!**

(맥주 뚜껑을 따고) 종파티다!!!

별걱별걱 목구멍 열고 맥주를 들이켜는 고 반장.. 잘도 들어가는데..

숙연하던 장 형사와 마 형사가 뭔가 깜빡한 듯 눈이 커진다..

장 형사/ 마 형사 (고 반장에게 달려가며) 반장님!!!

퍽-!! 고 반장이 마시던 맥주를 발로 차버리는 장 형사.
달려오던 마 형사의 면상에 처박히는 페트병. 으헉!!

플래시백 인서트 -

*닭은 튀겨 나온 마 형사, 장 형사와 눈이 마주친다.
장 형사는 맥주와 콜라에 약을 타고 있다.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고 반장의 트림... 끄어어억... 초연해지는 듯 하다가.. 눈에 쌍볼이 켜지는

고 반장 (벌떡 일어나) 야 이 개식구들아!! 이 미친.. (휘청) 어머니.. 어머..
장 형사 (부축하며) 반장님!
마 형사 야 라꾸라꾸 퍼..

재훈과 영호가 쟁싸게 라꾸라꾸를 펴고 침구를 챙긴다.
라꾸라꾸로 고 반장을 옮기는 장 형사와 마 형사.

장 형사 죄송해요.. 죄송해요 반장님.. 혹시.. 일이 잘못 될까 봐..

고 반장, 순순히.. 라꾸라꾸에 눕는다.. 바르게.. 이불을 덮어주는 대로 가만히..

마 형사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해체 되는 거.. 조금한 마음에..
고 반장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돈 맛을 봐서 그래..
 지긋지긋하게 잠복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괜히 더 한 날도 있었다..
 와이프 눈치 보여서.. 근데 맛 집 사장이 되니까..
 와이프가.. 먼저 썰터라.. 그게 좀 무섭긴 해도.. 집에 들어가고 싶터만..
일동 반장님..

고 반장의 손을 잡고 울먹이는 장 형사와 마 형사..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는 영호와 재훈.. 이건 흡사...

고 반장 (손을 빼며) 그만해.. 진짜 뒤흔는 거 같잖아..
 흐흐.. 그래도.. 우리.. 치킨 집은 남았다.. 돈 맛 본 김에..
 그냥 쪽 보지 뭐.. 우리.. 장사 잘 되잖아..

스르르... 눈이 감긴다...

44. TV 화면

스르르.. 눈이 떠진다.. TV 화면.
'놀라운 맛 익스파일'이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원거리에서 줌으로 찍은 통닭집 내부,
모자이크 처리된 고반장과 장 형사가 손님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배달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재훈의 모습도 보인다.

히 피디 SNS에서 유명 맛 집으로 알려지자 곧바로 황제 치킨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
다.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요.

눈에 검은 띠 처리가 된 마 형사가 뒷문에서 배달시킨 닭을 받아 들어간다.
마 형사 들어가고 나면, 달려와 쓰레기봉투를 뒤적이며 보여주는 피디.
교천 치킨, 호석이 세 마리 치킨 등의 박스가 보인다.

히 피디 다른 업소의 음식을 배달 받아 박스만 바꾸는 소위 박스갈이가 그것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영업행위를 일삼아 온 치킨 집이 바로 이곳입니다.
창청동 소재의 수원 왕 갈비 통 땡.

'닭'자만 가린, 그나마도 약한 모자이크.. 스르르.. 다시 눈이 감긴다. 암흑에서..

마 형사 (소리) 반장님..
고 반장 (소리) 조용해 개새끼야..

45. 경찰서 일각 / 낮

담배를 뽕뽕 피우고 있는 최 반장.
그 앞에 무기력하게 서있는 고 반장.

최 반장 정직하게 사시더니 기어코 정직 당하셨네.. 정확해 아주. 빈틈이 없어.
후.. 닭까지 튀겨가며 그러고 있었다는 건..
이무배 떴다는 건데.. 왜..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해?!

고 반장 ...보.. 고..?

최 반장 공조해준다고 정보까지 줬는데. 그거 받아서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다
또 다 나가리 낸 거지 지금?

고 반장 너는 왜 윗선보고 안 하고 나한테 이거 넘겼냐?
이무배 급이면 특수팀 구성할 거고. 그럼 정말 나눠먹게 되니까.
니가 우리 짱박아 놓고 이무배 뜨면 한 번에 몰아서 다 처 먹을라고
했던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씨씨티비냐?

최 반장 그래서 마약반이 여태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 아니냐고!
고 반장 (매섭게 노려보다가)...절 받아라, 개새끼야.

넙죽 큰절하는 고 반장. 상대 못하겠다는 듯 돌아서 가버리는 최 반장.
고 반장, 힘없이 일어서려하는데..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먼발치서 지켜보던 팀원들과 눈이 마주친다. 깊은 한 숨..

46. 고 반장 집 / 밤

방구석에 벽보고 쭈그리고 누워있는 고 반장.

부인 내가 아주 쪽팔려서.. 반장 그만하라니까 이젠 주방장이냐?
고 반장 주방장은 마 형사야

순간 머리통으로 날아오는 구찌가방, 열리면서 만 원짜리가 흩뿌려진다.

부인 그나마 착한 일 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참고 살았어.
근데, 업무시간에 장사나 하고.. 음식 가지고 사기나 치고,
누가 그런 돈 갖다 달래?.... 누가 그렇게 나쁜 놈 되래..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부인.

부인 그래.. 차라리 잘됐어. 이참에 형사 그만두자!
고 반장 !!!
부인 잠복에, 야근에 몸싸움에 몸은 몸대로 상하고..
범인 잡으면 출소 후 두고 봐라 헐박이나 당하고.
칼 맞고 안 죽은 게 뭐 재미꺼리라고 좀비라는 소리나 듣고..

하더니.. 갑자기 빨래거리 든 쇼핑백을 쏟아 붓는다.
그리고는 팬티 하나를 집어 입에 물더니 이빨로 잡아 뜯는다.
팬티 안에서 비닐에 쌓인 조그만 부적이 나온다.

고 반장 !!!
부인 당신 또 칼 맞을까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어.
고 반장 여보..
부인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난 당신 믿어.. 뭐든 하면 잘해낼 거야.
고 반장 흑흑.. 고맙다.. 은정아..
부인 땀한 월급에 따로 모아 놓은 돈은 없지만..
고 반장 아흑흑흑..
부인 다행히 우리에게겐 당신 퇴직금이 있잖아.

고 반장 !!!!!!
부인 그걸로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차리자. 난 뭐든 좋아.. 치킨집만 빼고!
고 반장 (더 크게 운다) 호어어어어어어어어형
부인 (고반장 안아주며) 바보같이.. 울긴...

아흐아아아~ 고 반장, 오열한다.

47. 치킨 집 / 낮

두둥- 고 반장의 얼굴. 얼굴 한쪽에 선명한 멍 자국.
그 앞에 꾸뻑꾸뻑 앉거나 서있는 팀원들.

고 반장 왜 왔나?
장 형사 그러는 반장님은요?
고 반장 퇴직금 회수 안 해오면 이혼이렌다. 내가 뭐 하겠냐?
영호 무슨 말씀이세요.. 복직 안 하시겠단 거예요?
고 반장 개뿔 복직해도 지원팀으로 돌릴 거고. 말이 정직이지 나가라는 거 아냐.
마 형사 아, 왜 이러세요. 반장님이 그동안 이무배 잡으려고 얼마나 서빙을..
 아니 고생을 했는데..
고 반장 니들도 복직할 때까지 와서 일해. 수입은 엔분의 일.
영호 됐어요.. 우리가 치킨 집을 왜 해요?
재훈 맞습니다. 전 형합니다, 형사!

그때, 딸랑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재훈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마 형사, 재훈, 자연스레 주방 쪽으로 가고, 영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고 반장, 카운터로 향하다 자신들의 행동에 멈칫하는데..

손님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

고 반장, 누가 나를.. 하고 보면.. 정 실장이다.
정실장의 얼굴로 킁 줌 인.

48. 호텔 / 밤

이무배 얼굴에서 킁 줌 아웃. 소파에 반쯤 누워 '놀라운 맛 엑스 파일'을 보고 있다.
김스를 하고 있는 상필에게 서류 파일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정 실장.

이무배 와아.. 병신 짓도 참... 왜 저래? ...근데 저 동네 되게 낯익다?
 상필 엄뎡뎡... 저 새끼들.. 인간들 북적거리서 옮겼더니 나오자마자 망하네?
 이무배 그러니까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벌 받는 거야.
 정 실장 네. 저희는 정품 정량. 장사는 신뢰죠.
 어.. 회장님 재네 섭외하면 어떨까요?
 이무배 ?

49. 치킨 집 / 낮

고 반장 (가우똥) 뭐.. 뭘 하시겠다구요?
 정 실장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 반장 (마 형사를 보며. 왜에?)
 마 형사 아~ 방송을 못 보셨구나~
 정 실장 당연히 봤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려왔고요.
 원조 대박집이 방송 한번 나갔다고 문 닫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기억력 좋지 않아요.
 장 형사 해해해.. 아저씨. 여기서 사기 치면 안 돼요.
 판 데서도 안 되는데 여기선 더 안 된다? 그런 게 있어. 보내드릴게 가세요.
 고 반장 그래 언젠가 우리가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었구나~ 하게 될 날이 올 거요.
 정 실장 하하하. 순수하십니다, 들.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해주시고.
 투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투자 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
 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바닥에 있는 꼴을 제일 좋아
 하거든.
 마 형사 우리 같은 사람은요. 안 그래도 뽐뽐한데 뭘 빼먹을 거 없나~
 짱구 돌리는 꼴을 제일 싫어하거든. (품에 지갑을 꺼내며) 형이 뭐하냐면..

정 실장, 가방을 툇 테이블에 올리더니 열어서 보여준다. 현금다발이다.

정 실장 (명함 밀며) 저야 신분이 확실하니까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솔직히 여기.. 사기 쳐서 쪽쪽 빼먹어도 이거 이상은 안 나올 거 같고.
 고 반장 그건 그렇지...요.
 정 실장 제가 인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 왕갈비 통닭 브랜드와 리서피.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 그것만 전수해 주시면 됩니다.
 마 형사 (경찰 배지가리고 명함 꺼내주며) 주방에서 닭 튀기는 마 봉팔이라고 합니다.
 장 형사 도련님 차라도 한 잔 내주세요.
 재훈 (주방으로) 네 형수님.
 영호 에이 정말... 반자.. 아니 매형.
 고 반장 합시다. 계약.
 영호 에이 왜 이러세요, 진짜!

50. 옥상 / 밤

먼 하늘을 보고 선 고 반장.

고 반장 우리 딸 예진이 알지? 개 초딩 때 장래희망이 뭐였는지 알아? 용의자.
 용의자가 되면 아빠를 자주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형사들 ...

고 반장 우리 마누라는 교회 집사야. 근데.. 얼마나 불안했으면 부적을....
 (봉투 내밀며) 사직서다.

영호 반장님!

고 반장 박수칠 때 떠나랬는데.. 뒤통수치고 떠나 면목 없다고 전해주라.

사직서를 받는 장 형사.

고 반장, 장 형사의 어깨를 쓸쓸하게 토닥이더니 이내 돌아서 간다.

영호, 그런 고 반장을 쫓아가려는데... 영호를 잡는 장 형사.

장 형사 뭐로 설득할 건데? 뭐 정의구현? 죄 안 짓고 살면 그게 정의지.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드릴란다.

마 형사 그래. 용의자가 되면 만나는 아빠보다 치킨을 시키면 만나는 아빠가 낫지.

재훈 저도 뭐.. 적금도 부어야 되고..

영호 후... 그럼 정 대표 어떤 놈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하자고.
 아 돈다발 들고 다니는 놈들 일단 구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51. 정 실장 공장 비밀 공간 / 공장 내부 / 공장 외부 / 낮

소금을 봉투에 넣는 그림 이어지고.

환풍기에 새어 들어오는 빛이 전부인 음침한 공간.

양 옆으로 마련 된 작업대에 앉은 조직원들 대여섯 명.

마약을 저울에 재가며 신중하게 소금 봉투에 넣고 있다.

흡족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밖으로 나가는 정 실장.

문을 열고 나오면, 치킨 집에 납품 되는 각종 재료들을 포장하고 있는 평범한
물류공장의 내부. 카메라 빠르게 공장을 빠져 나와 공장 건너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이동. 망원경으로 공장 내부를 살피는 영호.

다시 공장 쪽을 보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공장을 빠져 나오는 정 실장.

그의 차를 쫓아가는 영호.

52. 정 실장 집 앞 / 밤

호화 저택 앞. 차고 문이 열리고 정 실장의 차가 들어간다.
골목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있는 영호. 울리는 핸드폰.

영호 응. 말해.
동료 (V.O) 이 사람 뭐 깨끗한데?
영호 뭐 전과 같은 거 없어?
동료 (V.O) 있어야 돼?
영호 (괜히 짜증) 있어야 되면 만들어 줄래? 회사는?
동료 (V.O) 더 깨끗해. 취약계층 고용에 복지도 좋아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창도 매년 받고.
 년 근데 뭐 경찰이 홍신소 다니는 친구한테 이런 걸..

그냥 끊어버리는 영호. 짹 입맛 다시며 출발.

53. 본점&분점 몽타주 / 낮

1. **가게 앞. 낮.** (‘미안 미안해’ 몽타주에 맞춰 편집한 음악 흐르고)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영호. 무표정에 가깝고.
옆에서 괜히 신난 재훈. 즐기고 있다.
‘수원 왕 갈비 통닭 재 개업. 죄송해요 할인 이벤트’ 정도의 현수막.
‘반성 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피를 두르고 선거 후보처럼 연신 여기저기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고 반장.

2. **대구 분점 앞. 낮.**
간판 작업이 한창이고. 아래 공장 탑차에서 재료들을 나르고 있는 대구 직원들.

3. **가게 앞. 낮.**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 영호 재훈의 모습.

4. **가게 안. 낮.**
오픈 주방으로 바뀐 인테리어.
‘청렴결백한 주방이 되겠습니다.’라는 스티커도 보이고.
속속 들어오는 손님들을 반갑게 반기며 서빙하는 고 반장과 장 형사.

5. **광주 분점. 낮.**
탑차에서 물건을 나르는 직원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면,
자재 박스를 열어 물건을 확인하고 소금봉투에 옮겨 넣는 작업을 시작하는 조직원의 모습.

6. 가게 앞. 낮.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 영호 재훈의 모습.

7. 부산, 대전, 인천, 안산, 시흥.. 분점 간판 인서트 흐르고.

8. 가게 앞. 낮.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 노래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5인방.

‘너를 두고 여길 떠나가길 미안해~’ 음악 종료.

한데 모여 손을 모으는 5인방. “본점이 흥해야! 분점도 흥한다!!!”

54. 호텔 / 낮

거울 앞 수트를 빼입고 단장하고 있는 이무배.

뒤에 목발을 잡고 서있는 상필.

이무배 다리 많이 아파?

상필 이제 겨드랑이가 아프네요.

이무배 원래 나이 먹으면 돌아가면서 아파. 일 진행은 잘 되고?

상필 예. 뭐 정 실장이 일을 그래도 깔끔하게 하네요. 근데..

일을 널려 놓고 보니까.. 이 정도면 테드창이 눈치 까고 들어오지 싶은데..

이무배 응..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갈라고.

상필 (!!) 지금요? 애들 준비합니까?

이무배 아니. 선희야 가자.

상필 ??? 두 분이서? 그 험한 테를? 아니..

이무배를 따라 나서는 선희.

55. 피자 핫 / 낮

입구에서부터 달려드는 점원 복장의 조직원들.

장정 너댓 명을 순식간에 쓰러트리러는 선희.

쓰러진 조직원들을 밟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이무배.

창가 쪽 테이블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테드 창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이무배 창식이 안녕.

테드 창 하.. 저 비영신이 해맑고 지랄이야..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우르르 달려 나오는 조직원들.

이무배와 선희 뒤를 에워싼다.

테드 창 이렇게 등장하면 내가 너 처죽일라고 찾아다닌 수고가 뭐가 되냐?
 이무배 애써 숨지도 않았고만 뭐 그렇게 못 찾니? 답답해서 내가 왔지.
 테드 창 둘이 왔어? 기지배랑? 뭐 씨발 청첩장 주러 왔냐?

이무배, 테이블로 향하자 달려들려는 수하들을 손으로 제지하는 테드 창.

이무배 (테드 창 앞에 앉으며) 장사 잘 되나.. 여긴 뭐가 맛있어?
 테드 창 피자집이 썩새야 피자가 맛있지. 신 메뉴 나왔는데 하나 시켜줄까?
 어차피 뒤질 건데 돈은 안 받을게.
 이무배 한약 먹는 중이라 밀가루는 좀 그렇고. 시간 없어서 본론. 동업하자.

손에 들고 있던 ‘수원 왕갈비 통닭’ 서류철을 넘기는 이무배.

테드 창 (서류를 넘겨보며) 뭐야.. 치킨..? 뭐? 피자나라 치킨공주 하자고?
 이무배 내가 줄창 노래를 불렀지? 선생님도 학생도 직장인도 공무원도 목사님도 스
 님도! 편의점 가서 담배 사듯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 보급형 뽕
 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 났거든? 너 다 가져.
 테드 창 ..유언이 길다 야.
 이무배 말 좀 무섭게 하지 말고 새끼야. 떨리잖아. 야 창식아.
 테드 창 테드 창 이라고 개새끼..
 이무배 그래 창식아. 아니 창씨가 아닌데 왜 테드 창인 거야?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
 테드창 !!!!
 이무배 그래, 뭐.. 아무튼 나 중국 가서 열심히 했다 진짜.
 짱개 새끼들이 청나라 기질이 있어가지고 조선 놈 얼마나 무시하나?
 꼭 참고.. 자리 잡고.. 일 좀 풀린다~ 싶었는데.. 사드가 터지네?
 하.. 약쟁이들이 애국심을 논하는데 존나 웃기더라. 너무 힘들어..
 테드 창 자금 딸리냐? 돈 달라고?
 이무배 니가 대한민국 다 먹으라고. 내가 중국에서 물건 떼 주면 넌 팔고. 윈윈.
 넌 여기서 윈. 난 대륙에서 윈. 쉽지?
 테드 창 하... 내가 또 속아줘야 되는 거냐 어찌냐? (뻘히 보다가) 장사는 잘 되고?
 이무배 돌려봐라. 을매나 잘 되는가.

56. 부산 분점 / 낮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부산 조직원1.

손님 언제 나와요? 시킨지 30분 넘은 거 같은데...

손님의 재촉에 주방으로 향하는 부산1.

땀을 뻘뻘 흘리며 튀김기 앞에 서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는 부산2.

부산1 야, 5번 테이블꺼 내온나!

부산2 (이 양물고) 밥 먹고 있다 안하나.. 안 보이나..

부산1 마이 못다.. 좀 나와라!

부산2 튀긴다, 씨팔 내 여 닭 튀기러 왔나?

부산1 뭐? 씨팔? 이 개새끼야 내는 서빙하러 왔나?!

부산2 개새끼? 니 주둥이도 함 튀겨주나?!

거친 욕설이 오가더니 곧 몸싸움을 벌일 기세다.

홀에 앉아 조직원을 지켜보는 손님들, 모두 겁에 질린 표정들.

57. 광주 분점 / 낮

명단을 보며 마약가루를 소금봉지에 담고 있는 광주 조직원1,2.

그때, 팔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줌마 부대 손님들 우르르 시끌벅적.

아줌마 오호호호호~ 우리 20 명!

광주1 단체 안 받으요.

아줌마 잉?

광주1 단체 안 받는당게.

아줌마 오호호호호~ 그라믄 우리 네 명씩 따로 앉아서 단체 아닌 척 하면 되겠네.

잉. 앉어앉어. 우리 단체 아니니께 옆 테이블이랑 말덜 섞지 말랑게~

까하하하하하~ 좋다고 웃으며 앉는 아줌마들.

주방 칼을 집어 드는 광주2.

58. 안산 분점 / 낮

치킨을 먹고 있는 손님들, 인상이 좋지 않다.

손님1 이거.. 맛이 왜 이래?

손님2 그렇게 마약 치킨이라매?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는 조직원2

안산2 방금 뭐이라 켜니? 마약치킨? 고거이 우리가 마약한다는 소리니?

손님1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안산2 (주방에 대고) 야! 애가 우리 치킨보고 마약이란다.
안산1 (칼 들고 나오며) 씨랄랑게! 어튼 간나가 그딴 소릴 지껄이니?

겉에 질리는 사람들.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으악~~~ 하고 달려 나간다.

59. 본점 / 밤

저녁 시간이건만..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재훈이 보여주는 SNS를 보고 있는 고 반장.
‘수원왕갈비통닭’의 횡포, 직원들의 깡패 같은 태도, 위생상태 엉망.
맛이 짭이라는 얘기들로 도배 되어 있다. 노기 오르는 고 반장.

재훈 방송으로 맞고 SNS로 맞고.. 이러면 진짜 재기 불능입니다..
고 반장 어째 잘 간다 했다. 장사하면서 사람 쓰는 게 켈 힘든 건데 이 씨부랄..

60. 정 실장 공장 사무실 / 낮

평범한 사무실.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너댓 명의 직원들.
소파에 앉아 있는 정 실장 앞에 고압적인 기운의 고 반장.

고 반장 죄송? 남에 밥줄을 끊어 놓고 죄송?
정 실장 (고개 숙여 인사하며) 관리 인력 충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고 반장 나도 단단히 일러두죠. 만약 또 다시 내 치킨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땐 가맹이고 나발이고 혼자 안 죽어! 아사리판 난다 진짜!
정 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 반장, 광 문을 닫고 나가면. 얌전하게 보이던 넥타이 직원이 사무적으로

직원 죽일까요?
정 실장 뭘 죽이기까지.
직원 그럼 병신 만들까요? 지금 탑차 기사들 대기 시간이라 사고 위장은 바로 가능한데요.
정 실장 됐어. 구매자 확보 됐단니까 회장님 나가실 때까지 애들 조용히 시켜. 문제 안 생기게.

61. 정 실장 공장 앞 / 낮

건물을 빠져 나오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심각한 표정의

고 반장 어 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각자 흩어져서 분점들 한번 후벼야겠다.

62. 본점 / 밤

한쪽 벽에 빔 프로젝트 쏘며 브리핑 하고 있는 영호.

광주지점 직원들의 사진이 하나씩 뜬다.

심각한 얼굴로 자리에 모여앉아 듣고 있는 고 반장 팀.

날카롭게 반짝이는 눈들이 영락없는 형사들 포스다.

영호 천만기, 35세. 광주지점 서빙담당으로 현재 금연 26일 3시간 25분으로 3일 수명연장 되었구요. 36세 주방장 전효봉.. 11호 닭 기준 17조각을 평균 2회에서 3회의 안정된 찢르기로 치킨 맛을 향상시켰습니다.

고 반장 수고했어. 다음.

재훈이 일어나 나온다.

재훈 네, 저는 09시 30분부터 23시까지 하루 평균 2~ 30회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배달 현장에 매복... 아니 잠복 했는데요.

고 반장 방문 손님은 확 끊겼는데 배달주문은 많다?

재훈 네. 별 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는데. 치킨을 한 번에 스무 마리씩 들고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녹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 됐구요.

장 형사 스무 마리씩? 아니 치킨이 뭐 신문이야? 미쳤네, 이것들.

재훈 (가웃) 그래서인지 어제는 좀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객이 치킨을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고 반장 하~ 돌겠네. 홀을 잡아 놓으니까 배달을 개판 친다? 이 새끼들 목적이 뭐야? 안 되겠어.. 영호는 내일 나랑 현장 둘러보고 피해자들 아니 고객들 만나서 배달치킨 상태 확인하고,

영호 네.

고 반장 재훈이. 너 주방장으로 승진.

재훈 (!!) 네..? 제가요?

고 반장 보조 그만큼 했으면 올라갈 때 됐지. 할 수 있겠지?

재훈 (웬히 감격...) 아.. 제가.. 주방장을..

마 형사 (!!) 뭐야? 나는?

고 반장 마 형사는 선도 반장. 지방 분점들 돌면서 애들 좀 갈귀. 애들이 겁을 안 먹는다.

마 형사 아~ (끄덕끄덕) 내가 드디어.. 반장..

고 반장 장 형사는 가게일 도우면서 틈틈이 수도권 매장 감시해주고.

장 형사 네~
고 반장 좋아, 오늘은 이상.. 질문 있는 사람!

그때 카운터에 있던 부인이 손을 들며..

부인 저기.. 내가 지금 헛갈려서 그런데... 당신.. 형사 아니지?
 맘 잡고 프랜차이즈 사업 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고 반장 아휴~~ 그러~~~엄!

63. 파란 대문 집 / 낮

황! 대문이 열리며 40대 짙마른 체구의 쾅한 여자가 나온다.
치킨을 받더니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잡아 뜯는 여자.
상자를 열고 뒤적이더니.. 역시나 치킨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들어간다.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치킨을 먹는 고양이들.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고 반장과 영호.

고 반장 아니.. 송질나서 집어 던지고 또 시켜. 그리고 또 집어던져?
영호 이게 뭔가 줌..

대문으로 다가가는 두 사람.. 벨을 누르나 아무 반응이 없다.

64. 목욕탕 / 낮

휴게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 반장, 영호.
평상 위에 먹지 않은 치킨이 그대로 있다.
그곳엔 여기저기 문신을 한 조폭들이 널브러져 있다.

고 반장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저 혹시.
 조금 전에 수원 왕갈비 통닭 시키신 분을 찾는데요.
직원 아.. 수면실에서 주무실 걸요? 왜요?
고 반장 그.. 배달이 잘못 돼서..
직원 (바쁘게 가던 길 가며) 아 수면실 저쪽이요.
영호 아니 왜 시켜놓고 안 쳐먹어 다..

65. 거리 / 낮

생각이 많은 얼굴로 걷고 있는 고 반장, 영호.

고 반장 (뭔가 생각이 많은 얼굴이다가) ...다음은 어디냐?
영호 당구장.. 다음은..

하다가.. 순간!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영호.
주변을 빙 돌며 스윽 둘러본다.

영호 ...똑같은데요?
고 반장

66. 허름한 상가 복도 / 낮

폐건물 수준의 허름한. 이제 영업을 하지 않는 반파 된 논술학원 간판이 보이고.
한쪽 계단에 몸을 숨기고 앉아있는 고 반장, 영호.

영호 배달 루트가 똑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그때, 헬멧을 쓴 배달원이 반대편 계단 쪽에서 저벅저벅 걸어온다. 다가오는 배달 오토바이.
조직원인 벨을 누르자 달려 나오는 남자.
조직원인 치킨을 주며 손을 내밀자, 남자가 봉지를 잡으며 애원을 한다.
순간, 얼굴 험악해지는 배달원, 다시 치킨을 빼앗는다.
남자가 미친 듯이 매달리지만 그냥 가버리는 배달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가 결국 바닥에 널브러지는 남자.
바쁜 걸음으로 사라지는 배달원. 그저 멍하니 주저앉아있는 남자.
어느 사이엔가 남자 앞에 다가와 서는 고 반장.
불안하게 시선을 피하는 남자. 힘겹게 일어서 들어가려는데..
남자를 돌려세워 얼굴을 보려는 고 반장.
없는 기운에 반항하다가 다시 넘어지는 남자.

고 반장 (남자의 턱을 잡아 돌리며) 나 봐. 나 보라고 이 새끼야..
 너 잡으러 온 거 아니니까 말 들어. 나 봐 이 새끼야!

남자의 따귀를 때리고 억지로 눈을 열어보는 고 반장. 벌겋게 충혈 된 눈.
이번엔 소매를 걷어 올려 남자의 팔뚝을 확인하는데.. 주사 명 자국.

고 반장 (심각하게 굳어지는...) 이 개새끼들.. 뒤질라고...

67. 아파트 현관 / 낮

‘LG U 플러스’ 작업복 조끼가 보인다.
문이 열리면 드러나는 장 형사와 재훈.
너저분한 집안, 역시나 너저분한 인상의 남자.
현관 입구에 산처럼 쌓여있는 ‘수원 왕갈비 통닭 충주분점’ 박스들.

장 형사 고객님, 사랑합니다. LG U 플러스에서... (하는데)
남자 우린 KT인데?
장 형사 SK 텔레콤까지 더불어 상생 중인 KT에서 인터넷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 점검이요? 별 이상 없는데...?

남자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열린 조끼를 벗어서 뒤집어 입는 장 형사와 재훈.
KT 로고로 바뀐다. 조심스레 안쪽을 두리번대며 신발을 벗는 두 사람.

68. 파란대문 집 안 / 낮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는 영호. 등에 소독 용기를 짊어지고 있다.

영호 (굽신굽신 미소) 금방 끝나니까요.

문 열어주고 소파에 가서 털썩 드러눕는 여자, 치킨 버렸던 그 여자다.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치킨 박스들.
영호, 화장실로 들어가 배수구에 소독약을 뿌리며 수납장을 몰래 열어본다.

69. 목욕탕 / 낮

조폭들의 때를 밀어주고 있는 고 반장.
탁탁 손바닥을 치자 앞으로 돌아눕는 조폭.
조폭의 팔과 다리에 난 멍 자국을 날카롭게 살펴보는 고 반장.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이 샌다..

70. 파란 대문 집 안 / 낮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쓰고 털털 떨고 있는 여자.
베란다의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치킨이 가득 들어차 있고 박스도 몇 개 굴러다닌다.
소독약 뿌리며 거실의 테이블을 보는 영호.
아무렇게나 널린 치킨 박스와 달리 가지런히 모여 있는 소금 봉투에 시선이 간다.

71. 안산 분점 / 밤

어두한 실내에서 마작을 즐기고 있는 조직원 네 명.

중국말로 뭐라뭐라 수다 떨며...

그때 어슬렁어슬렁 주방 쪽에서 나오는 마 형사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조직원들.

안산1 야 씨! 어뜨케 드왔니?!

마 형사 뭘 어뜨케 드와 앞 문 잠겼길래 뒷문으로 들어왔지. 아~ 이 아저씨들 중말.
근무 태도 드럽기가 아주 일주일 넘은 기름만도 못하시네~
영업시간에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Cut To -

조직원 세 명과 마작을 하고 있는 마 형사.

조직원 한 명은 테이블에 엮어져 TV 시청.

안산2 (중국어) 그래도 이 새끼 본점에서 온 놈 치고 인간미가 있다.

사투리:这人儿啊, 你别看他从总店来的, 人还行。

찌 렐아, 니 비에칸 타 총 종띠엔 라이데, 런 하이싱.

안산1 (중국어) 나도 맘에 든다. 나보다 못생긴 새끼 오랜만이야.

사투리:嗯, 小伙儿还行啊。混这么长时间, 我就没见过这么磕碜的。

웅, 샤오훤 하이 싱. 훈 쩌 창 스지엔, 위 찌우메이 찌엔귀 찌머 크어-천데.

안산3 (중국어) 그나저나 본사 새끼들 짹 갈릴 거라는데?

사투리:那啥, 总店那块儿要撙下一大批人呢。

네짜, 종띠엔 네칼 야오 루-짜 이따 피-런네.

안산1 (중국어) 그래?

사투리:真的奥?

쨌데오?

안산3 (중국어) 몰랐니? 회사 테드창한테 넘기고 정 실장 죽여 버린다고 하든데?

사투리:你不知道奥? 公司让테드창给收了, 老郑让人给收拾了。

니부따오 아? 풍스 랑 테드창 게이 쏘-올리, 라오쨍 랑런 게이 쏘-우슬리.

안산1 (중국어) 한국에서 약 장사 하려면 그쪽이 편하긴 하지.

사투리:哦, 在韩国贩毒还是这么办行了的奥。

오, 짜이 한귀 판두 하이쓰 찌머 뽀 싱리아오데 허.

마 형사 (중국어) 그게 뭘 소리니? 누구한테 들었니?
표준어: 啥意思? 这谁告诉你的?
샤이쓰? 찌 세이 까오쭈니더?

안산3 (중국어) 테드창 남바 투가 연변에서 내 동창.. (!!!)
사투리: 테드창老二是我老同学嘛, 在延边那嘎达.....
테드창 라오알 쓰 윈 라오통쉬에마, 찌이 앤비엔-내 까-다.....
(한국어) 니 중국말 할 줄 아니?

마 형사 (어리병...) 응.
안산3왜?
마 형사 (어리병...) 나 화교 출신.
안산3 아.. 그러니..?

잠깐의 정적.. 마 형사, 부리나케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순간,
뒤에 있던 안산4, 의자로 마 형사를 찍어버린다.

72. 폐 공장 / 새벽

평소답지 않게 흥분한 이무배, 다급히 공장 안으로 들어온다. 뒤따르는 선희.
한 가운데 피죽이 되어 바닥에 엎어져 있는 마 형사.
그 주위로 상필, 정 실장, 강력반 조직원 네 명, 안산 분점 조직원 네 명.
바짝 긴장한 정 실장과 조직원들.
상필이 이무배에게 마 형사의 지갑을 건넨다. 펼쳐보면 경찰 신분증.

이무배씨발.. 나가리 났구만.. (순간 불같이 괴성을 지르는) 으아아아아아!!

그리고 전에 없던 살기로 정 실장을 노려본다.

상필 아, 니가 하자 그랬지? 뭐 언더커버여?
정 실장 저 아녜요.. 아닙니다!!
상필 내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서 목발을 스댕으로 했다 이 개새끼야!!

목발로 사정없이 정 실장을 후려치는 상필.
피죽이 되어 바닥에 늘어지는 정 실장.

상필 나머지 끌어 올까요?
이무배 (시계 보며) 거래시간까지 잠자코 있어.
도박하는 새끼 하루 연락 안 댔다고 이상할 거 없고.

우리가 거래할 시간에 이쪽으로 유인해서.. 다.. 죽여 버려.
 상필 짹새들어요?
 이무배 뭘 상관이야 씨발 창식이 죽인 걸.
 죄다 창식이한테 넘기고 우린 돈만 챙겨서 배 탄다.
 그때까지 그 짹새 새끼들 감시해.
 상필 ..네.

73. 본점 / 낮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금 봉투.
 한쪽 옆에 재훈이 약간 눈이 풀려 침을 흘리고 있다.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고 반장.

고 반장 나랏일을 하면 나랏일 하는 쥐새끼가 훔쳐 먹고..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쥐새끼가 훔쳐 먹고..
 먹고 좀 살겠다는데.. 뭐 이렇게 세상이.. 응?
 영호 ..신고하시죠.
 장 형사 우리 지점들이 마약운반책이야. 그럼 우린 뭐가 될 거 같냐?
 영호 아흐.... 설마 우리가 알고 그랬다고..
 고 반장 우리가 잡아야 돼.
 영호 반장님. 애네 규모를 보세요. 감당 못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경찰도 아니고 그냥 치킨 집 직원입니다.
 고 반장 대한민국에 이정도 판 벌릴만한 놈이 누구 있겠어?
 장 형사 테드 창.. 아님 이무배.
 영호 ...!!!
 고 반장 쥐새끼 잡는데.. 경찰이 어딴고 닭 집 사장이 어딴냐..
 재훈 (약에 취해서) 잡좌아!!!!!! 쥐잡좌아아~!!!
 고 반장 마 형사 어딴니?
 장 형사 이 개식구 어젯밤부터 연락 안 돼요.
 이거 어디서 또 도박하고 있는 거 아냐?
 고 반장 문자 남겨놔. 이번엔... 꾸물대지 말자. 정 대표 먼저 조지고 들어간다.

74. 본점 앞 / 낮

급출발하는 수원왕갈비통닭 스티커가 붙은 다마스!
 그리고 골목에 나와 다마스를 쫓는 검은 승용차.

75. 정 실장 공장 사무실 / 낮

부술 듯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 반장과 장 형사, 영호.
풀린 눈으로 삼단봉을 휘두르며 들어오는 재훈.
텅 빈 사무실. 여기저기 급하게 정리해 빠져나간 흔적들.

장 형사 뭐야..? 눈치 낀 거야?
고 반장 이런.. 쟁!!
영호 집으로 가보죠. 제가 알아요.

76. 공장 앞/ 낮

다급히 뛰어나오는 고 반장 팀. 장 형사의 전화가 울린다.
확인하면 마 형사의 영상통화.

장 형사 이런 미친 새끼! 영통하고 지랄이야!

전화 받으면. 피죽인 상태로 의자에 묶여 있는 마 형사의 모습.

장 형사 ...붕~팔아아아아!!!!

깜짝 놀라 멈춰서는 형사들.

상필 (소리) 사장님. 개지랄 떨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애, 금방 죽어.
장소는~ 두어 시간 있다가 찍어 드릴게~ (전화 끊고)
장형사/고반장 야 이 개새끼!!!
고 반장 하... 이게 뭘 꼬라지로 돌아가는 거냐 이게..
영호 이 새끼들 왜 시간 끌지?

울 것 같은 장 형사 핸드폰 커플 위치 추적 앱을 켜다.

영호 뭐야.. 커플..?
장 형사 출발해 출발!!!

77. 폐 공장 / 낮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안산 조직원들.
그들을 지나 바빠 공장을 빠져 나오는 상필과 그를 따르는 강력반 네 명.

강력1 이번엔 중국에 좀 오래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필 아.. 빌어먹을.. 돈 좀 더 챙겨야겠다. 엄마 집으로 가.

78. 상필 엄마 집 앞 / 낮

평범한 다세대 주택 앞. 그 앞에 서는 상필의 승합차.
목발을 짚고 차에서 내리는 상필. 그때,

최 반장 역시 효자야. 우리 상필이.
상필 (돌아보곤 대수롭지 않게) 나 바빠. 다음에 와.

최 반장, 잠복 중이던 차에서 강력반 형사들 세 명과 함께 내린다.

최 반장 너 애들 많이 죽였더라?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상필 지랄 떠네. 뭘 또 쪽수까지 맞춰서 왔데?

상필의 강력반이 차에서 내린다.

상필 강력반 대 강력반 4대4. 좋네. (집으로 들어가며)
 야 시간 없으니까 오래 걸릴 거 같으면 그냥 죽여.

성큼 성큼 몸을 풀며 다가오는 상필의 강력반.

최 반장 하.. 귀엽네.

강력반 대 강력반 치열한 혈투... 라기엔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나가는 최 반장과 형사들.
돈 가방을 들고 나온 상필이 돌아보면, 이미 바닥에 늘어져 끙끙거리고 있는 형사들.
상필과 조직원들 급히 승합차에 올라타 차를 출발시킨다.

최 반장 이 개.. 새..끼들..

바닥에 뒹굴며 이를 악물고 충을 꺼내는 최 반장,
하늘로 공포탄 세 발을 쏜 후 승합차를 겨눈다.
상필의 승합차, 속도를 올려 큰 길로 빠져 나가는데.. 황-
스쿨버스에 치여 날아가는 승합차.

최 반장

79. 폐 공장 / 밤

땅을 파고 있는 안산 2,3,4.
트럭 키를 쥔 채 나갈 채비를 하는

안산1 내 먼저 간다.

묶여 있는 마 형사와 정 실장 쪽을 지나며 매듭의 틈을 이용해 손을 빼내려
안감 힘을 쓰고 있는 마 형사를 그대로 지나친다.

안산1 애 뭐 할라나 부다. (바쁘게 나가고)

안산2 (땅 파던 삽 들고 다가가며) 그게 뭐 생각처럼 그렇게 되면 영화계?

미친 듯이 몸을 들썩이며 매듭을 풀려는 마 형사.
안산2, 마 형사의 머리 위로 삽날을 내려찍는데...

80. 도로 / 밤

달리는 다마스 안.

고 반장 아 쌍.. 멀리도 갔네..
장 형사 (울 것 같은) 더 밝아 더!
영호 걱정 마세요, 우리 마 형사님 안 죽습니다!
장 형사 죽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일까봐 그러지!

81. 폐 공장 / 밤

피투성이가 된 마 형사의 양손이 삽날을 양쪽에서 잡아낸다.

마 형사 (재갈 뒤편 뺀채) 놓어준 특별 전형이냐고 물어봐, 사람들이.

마 형사, 어리둥절한 얼굴의 안산2의 삽을 빼앗으며 일어선다.

마 형사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경찰이 된 거냐고.

마 형사를 향해 달려오는 안산3,4.
안산2를 한 방에 기절시키고 안산3의 삽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몸을 숙여
발뒤축후리기 기술을 거는 마 형사.

엎어치기로 안산4을 넘겨버리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한다.

안산3, 칼을 꺼내 다시 달려드는데 손을 꺾고 배대 뒤치기로 넘겨버리는 마 형사.

마 형사 (헉헉대며) 잘 안 믿더라고... (안산2의 머리를 발로 차며) 나,
유도 국가대표 특채라고. 알겠냐? (계속 헉헉대는)

정 실장이 감격하며 자기도 풀어달라고 눈빛을 던진다.

마 형사 봉신 새끼가 같이 묶여 있었다고 같은 편인 줄 아네..

괜히 한 대 얻어맞고 기절하는 정 실장.

트럭이 출발하는 소리에 달려 나가는 마 형사.

82. 도로 / 밤

한적한 시골길을 내달리고 있는 다마스.

장 형사 어.. 어... 스탑! 스탑!

끼이이익- 멈춰서는 다마스.

장 형사 위치가 바뀌었어!

고 반장 뭐? 봐봐.

장 형사 뭐야.. 어..? 이 근처데..

그때 옆으로 탑차 한 대가 지나간다.

넓은 화면으로 보면 탑차 뒷문에 겨우 매달려 있는 마 형사. 멀어진다...

장 형사 아 씨 또 바뀌었어! 또! 이 비웅신 뭐하는 거야?! 야 차 돌려 봐!

83. 궁평항 / 밤

커다란 배가 선박되어있는 곳으로 향하는 트럭.

매달려 있던 마 형사, 뛰어내려 컨테이너 뒤로 숨는다. 으윽.. 통중에 인상이 구겨진다.

조심스레 핸드폰 꺼냈다가 '부재중 전화 장 형사 132통' 히익, 놀라고.

마 형사, 급히 문자 찍다가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얼른 전송해버린 후,

가까스로 몸을 숨기는데, 지나가는 무리는 테드창과 그의 수하 열댓명.

84. 다마스 안 / 밤

장 형사 문자 왔어! 마 형사!
고 반장 뭐야? 뭐래?!

문자 확인하는 장 형사. 근데... 'ㅇㅁㅂ'

고 반장 왜?!
장 형사 ...이모부? 이명박?

85. 선박 앞 / 밤

엔틱 중고 소파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는 외진 곳.
소파에 편하게 앉아 테드 창을 맞이하는 이무배.
그리고 병풍처럼 서있는 선희와 마약반 조직원 네 명.
일어나 테드창을 맞이하는

이무배 뭘 또 이렇게 1개 중대를 끌고 오셨어?
테드창 내가 너한테 믿음이 없잖아.
 찌번처럼 소금 치고 짹새 불러들이고 그럼 후딱 죽이고 가게.
이무배 넌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나.. 그럼 애들 칼 찔어?
테드창 응.
이무배 다행이네. 우린 총 찔어.
테드창 총도 있어 개새끼.
이무배 뽕신 구라치시네. 봐봐. 봐봐?
테드창 바야바니미뽕이다 뽕신아.

수하들이 조금 창피한 듯 쳐다보자 유치한 말싸움을 멈추는 두 오야지.

이무배 아 돈이나 줘. 배타야 돼.
테드창 물건 꺼내.

선희가 탑차 쪽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컨테이너 뒤

몸을 숨기고 테드 창과 이무배의 모습을 보고 입이 벌어지는 마 형사.

마 형사 와..우.. 와우.. 대박...

다시 문자를 보내려는데 울리는 진동. 화들짝 놀라 바로 받는

마 형사 (최대한 작게) 문자로 해.. 문자..
장 형사 (F) 안 들려 이 새끼야 너 어디야?!
마 형사 (미치겠다 더 개미소리) 몰라 씨... 여기 다 있어. 이무배 테드창..
장 형사 (F) 안 들려 병신아!!
마 형사 이 씨바 진짜.. 문자로 해..
장 형사 (F) 아 됐고! 너 거기 움직이지 말고 좀 있어!!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전화를 끊는 마 형사. 선박쪽을 보며 안절부절..

마 형사 아.. 상.. 어찌냐어찌냐.. 다 놓치겠네.. 씨바.. 112.. 112..

하고 핸드폰을 켜다가 문득 뭐가 생각난 듯..

-선박 앞

신중히 하나하나 물건을 짊어 맛을 보고 있는 테드창의 수하.

이무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까보니? 조심해 새끼야 거 흘리는 게 반이네.

테드 창, 매서운 눈빛으로 수하를 본다.

수하 모두 에이급입니다.
이무배 친구끼리 믿자 좀.
테드창 (뒤에 수하에게) 돈 가져와.

이무배 씨익- 웃는데..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
두리번! 눈을 부라리며 죽일 듯 이무배를 노려보는 테드창.

테드창 이.. 이 개..
이무배 아 병신아 병원차 아냐.. 눈알 튀어 나오겠네 눈도 작은 새끼가.

-컨테이너 뒤

사이렌 앱으로 사운드를 켜던 마 형사, 화들짝 놀라 경찰 사이렌을 터치.

-선박 앞

다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무배 아이.. 씨바..
테드창 (품 안에 회갈을 꺼내들고) 이 개새끼야!!!

탕- 탕- 이무배가 쏜 총에 양 발이 터진 테드창이 그대로 고꾸라지고,

탑차에서 우르르 뛰어내리는 이무배 쪽 조선족 수하들이 합세.
양쪽 수하들이 엉겨 붙어 개싸움을 벌이는데,
선희와 마약반이 손쉽게 테드창 수하들을 압도한다.

-컨테이너 뒤

마 형사 존나 천재.. 존나 천재.. 그래 다 죽여.. 다 죽여..

그때 마 형사의 앞으로 다마스가 지나간다.

마 형사 오.. 씨바 어떻게 왔어?

싸이렌 소리와 함께 멈춰서는 다마스.
차 안의 고 반장과 형사들, 앞의 광경을 보고 입이 벌어진다.

장 형사 저거.. 저거.. 이무배가 들고 있는 거.. 테드 창?
고 반장 (젼싸게 사진을 찍는 고 반장) 애들이 좀 많네..

이무배 패거리들이 테드 창 패거리를 거의 눌혀놓은 상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테드창을 두들기고 있는 이무배.
자동차 라이트에 눈이 부시다.
싸이렌 소리가 멈추고 상향등이 꺼진다. 그제야 이무배의 눈에 들어오는 수원왕갈비통닭..
다마스!

이무배 아.. 나.. 격 떨어지게 상..
선희 회장님. 배로 가지죠.
이무배 돈.. 돈 가져와!

86. 취조실 / 밤

김스를 하고 앉은 상필. 마주 앉은 최 반장. 정적..
눈이 마주치자 개운치 않게 시선을 피하는 최 반장..

상필 니도 짹짹하지?

욕 한바가지 쏟아내려던 순간 카카오톡. 확인하면, 고 반장의 메시지.
이무배가 테드창을 쥐고 있는 사진과..
'궁평항. 수갑 좀 가져와'

87. 마포서 앞 / 밤

우르르 뛰어 나오는 강력반.

최 반장 평택에 지원 요청했어?
강력반1 했는데 인원이 없다고..
최 반장 야 이..!! 이무배라고! 테드창이라고!! 다시 돌려!
강력반1 네!!

다급히 승합차에 올라타는 강력반.

88. 선박 앞 / 밤

차에서 내리는 마약반.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 3단봉을 쥐고 달려들려는 재훈의 허리띠 잡고 있는 영호.

재훈 이제 싸워도 됩니까?!! 드디어?!!! 형사처럼?!!!
영호 (투건을 잡고 있는 개주인 같다) 워~ 워~~
이무배 본점에서 오셨구나...?
고 반장 (테드창 가리키며) 거 뭐 명절도 아닌데 그렇게 큰 선물을 가져왔어?
이무배 그래 이거 받고 가면 그냥 살려줄게.
고 반장 3만원 넘어 보여서 그냥은 못 받겠고. 그냥 둘이 같이 가자~
이무배 요즘 짬새는 이렇게 겁이 없냐.. 너네.. 네 마리아?
마 형사 다섯 마리다 씹새야!

대열에 합류하는 마 형사.

장 형사 부상자는 열외하지?
마 형사 한 새끼,, 딱 한 새끼만 죽일게.
이무배 기회를 줘도 병신들... 다 죽여 버려!

달려드는 조직원들.

씨익- 미친놈들처럼 웃는 마약반.

89. 도로. 강력반 승합차 / 밤

얼굴이 엉망인 강력반. 총에 실탄을 채우고 있다.

강력반1 야 더 밝아. 마약반 애네들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최 반장 해볼만 하다고 본다.
 강력반1 네?
 최 반장 깡패새끼들은 타이르면 말을 들어요.
 근데 약쟁이 새끼들은 눈깔이 돌아가지고 죽여달라고 덤비거든..
 마약반에 왜 개네들 모아 낚겠냐..
 강력반1 아니 뭐.. 마 형사야 유도 국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90. 선박 앞 / 밤

안산1을 찾아 이리 매치고 저리 매치고 있는 마 형사.

안산1 왜!! 왜 나만 가지고 지랄이니?!
 마 형사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 받는지 알아?!
 이 개새야?! (다시 옆에 치고)

최 반장 (V.O) 영호는 유디티 특전사 출신..

특공무술을 앞세워 조직원들의 관절을 꺾어버리고 있는 영호. 살기 돈는다.

최 반장 (V.O) 사람도 죽여 봤다는 소문이...
 장 형사는 무에타이 동양챔피언 출신.. 웅박이 아니라 장박으로 불렸던 여자
 다.

조직원들의 대갈통에 엘보를 찍어 기절시키고 있는 장 형사.

강력반1 오.. 그럼 재훈이는..?
 최 반장 ..야구부.

91. 도로. 강력반 승합차 / 밤

강력반1 오.. 응? 야구부요?
 최 반장 대한민국에서 연장 쓰는 운동부가 겁나 슬픈 게.. 땀집이 늘어서 나와요.

92. 선박 앞 / 밤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짓밟히고 있는 재훈.

얼굴을 가리고 얻어맞는데.. 그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웃고 있다.. 미친놈처럼..

재훈 **호호호호호호호... 안 아파.. 안 아파.. 으호호호... 안 아파아아악!!!**

미친개가 포효하더니 삼단봉을 펼쳐 조직원들을 후려가기 시작한다.

강력반1 **그.. 그럼 고 반장님은?**

최 반장 **고 반장 좀비설이 괜히 나왔겠냐.. 강력 범죄만 20년이야..
칼을 열두 번 맞았는데 여태 살아 있잖냐.. 안 죽어 그 형은!**

마구잡이로 조직원들과 주먹을 주고받는 고 반장. 똑같이 맞고도 쓰러지는 쪽은 조직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무배의 입이 벌어진다. 선희가 건넨 돈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이무배.
고 반장, 조직원 한 놈을 처리하고 이무배를 쫓아 쫓는다.

93. 선착장 / 밤

바쁜 걸음으로 오징어 배로 향하는 이무배와 선희.

고 반장 **이무배!!!**

소리에 돌아보면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고 반장이 달려오고 있다.

이무배 **(충을 뺏으며) 저 병신이 근데..**

선희, 이무배의 충을 거두게 하고, 고 반장에게로 달려간다.
둘의 충돌 직전 날아오르는 선희! 순간 그녀의 마뺑에 돌멩이가 꽂힌다. 펑-
360도 돌아 바닥에 떨어지는 선희.
고 반장, 놀라서 뒤쪽을 보면, 미친개 재훈이 쾅쾅거리며 달려오고 있다.
이무배, 안 되겠는지 충을 겨눈다. 탕-
고 반장, 달려오는 재훈을 끌어안고 나뒹군다.
재훈을 살피면 기절한 상태. 한 박자 늦게 자신의 팔에 충상을 확인하고.. 으아악!!
이무배가 배에 오르고 있다!! 이무배!! 거기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고 반장. 순간 날아오는 주먹!
선희의 펀치에 그대로 다운 되는 고 반장. 선희 급히 돌아가려는데
고 반장이 선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다시 고 반장을 밟으려는 찰나,
이번엔 마 형사가 선희를 덮치며 함께 쓰러진다.
한 바퀴 구르고 일어나 맞붙는 선희와 마 형사.

마 형사 **나 여자라고 안 봐..**

떡-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얻어맞는 마 형사.
그 사이 팔을 부여잡고 배에 올라타는 이무배를 쫓아 달리는 고 반장.
탕- 탕- 남은 총알을 허비하는 이무배.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총알을 피하며 끝까지 달리는

고 반장 안 죽어!! 씨바 안 죽어!!!

선희, 마 형사를 물썬 두들기고 일어나 돌아보면, 배가 떠나고 있다.

선희 저런.. 개새..

순간, 떡- 하고 날아든 발에 다시 날아가는 선희.
이번엔 장 형사다. 떡이 된 마 형사를 보자 눈 돌아가는 장 형사.

장 형사 야 이 쌍년아!! 그나마 볼 게 얼굴밖에 없는 애를 이따구로 만들어!!!!

벌떡 일어나 장 형사에게 달려드는 선희.
역시 달려가는 장 형사. 선희의 하이킥을 그대로 잡아 뒤로 미는 장 형사.
힘에 밀려 한 발로 꺾꺾이 밀려나는 선희... 순간 장 형사의 무에타이 엘보!!
관자놀이 정통으로 얻어맞고 그대로 고꾸라지는 선희.
분이 안 풀리는지 이미 기절한 상대의 목을 암바로 누르는데..
마 형사가 겨우 기어와서 말린다.

마 형사 그만 해.. 그만.. 죽어...!!

94. 선박 앞 / 밤

한 놈 한 놈.. 청 테이프로 팔 다리를 묶고 있는 영호.

영호 아 상... 싸우는 거 보다.. 묶는 게 더 힘드네..

쓰러져있던 조직원이 슬쩍 일어나 영호의 뒤를 노린다.
김새에 돌아보는 영호의 매서운 눈에 바짝 쫓그라드는 조직원.

영호 (청 테이프 건네며) 일루 와. 다리 묶어.

영호를 도와 다리를 묶는 조직원.

95. 오징어 배 / 밤

직접 조수대를 잡고 속력을 올리는 이무배. 뒤를 돌아보며 이를 가는데..
앞을 돌아봤을 때 번쩍 창문 앞으로 드러나는 고 반장의 괴기스런 얼굴!!

이무배 이 씨바!!!!!! 아아악!!!!
고 반장 (씨익---) 안 죽어.. 나 안 죽어..
이무배 이 개 상노무새끼!!! 일루와!!!!

Cut To-

바다위에 떠있는 오징어 배 위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무배와 고 반장.
고 반장의 상처를 연달아 공격하며 데미지를 입히는 이무배.
으아아아악! 괴성을 지르며 이무배의 코에 뚫배기를 박아버리는 고 반장.
으억!! 잠시 떨어져 숨을 고르는 이무배와 고 반장.

이무배 (흐르는 땀코피..) 이런 개... 상...

이무배 다시 달려드는데.. 점퍼 품속으로 손을 넣어 총을 빼려는 고 반장.
순간 놀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무배.
고 반장이 꺼낸 것은 뿔큐.

고 반장 총 없어 병신아.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
이무배 후.... 개새까!! 그럼 뭘데? 뭘데 니?!!
고 반장 나? ...닭 집 아저씨.
이무배 그니까... 닭 집 아저씨의 입장으로다가 날 잡겠다고?
고 반장 쥐새끼 잡는데 너나없다 이 쥐새끼야.
이무배 야. 지금이라도 놔 줄게. 하지 마. 수영 할 줄 알지? 가 그냥? 응?
 치킨집 하면서 왜 목숨을 걸어?!

고 반장 니가 침범했잖아.. 니가 소상공인 존나게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해 씨발라마!! 으아아악!!

달려드는 고 반장. 치열하게 주고받는 두 사람.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아무렇게나 주먹을 날리는 두 사람.
거의 모든 타격이 정타로 들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맞고 버티며 계속해서 때리는 두 사람.
으아아아아아!!!!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날 듯 보이던 어마한 난타전.. 끝에 퍼펙-
동시에 대자로 쓰러지는 두 사람.
초승달빛 아래 출렁이는 검은 바다.. 한 척의 오징어 배..
끄응... 투두- 투두- 관절을 꺾으며 일어나는 좀비.. 끼기기- 고개를 돌려 이무배를 확인.
겨우 정신이 들었지만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이무배. 뒤돌아보면,
웬 좀비 한 마리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거의 울먹이기 시작하는 이무배.
팔로 기어 도망가는데.. 눈 뒤집힌 좀비가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문다. 아작-
밤바다에 울려 퍼지는 이무배의 격한 비명 소리. 사이렌 소리 선행.

96. 선박 앞 / 밤

요란한 사이렌 소리 울리며 급정거하는 기동대 차량들.
승합차에서 내리는 최 반장과 강력반... 앞에 펼쳐진 장관에 입이 벌어진다.
카메라, 바닥에 널린 조직원들을 지나면 드러나는 이무배와 테드창.
그물에 칭칭 감겨 등을 맞대고 앉아있고.
뒤로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있는 마약반.. 마치 영웅본색2의 마지막 장면..

최 반장 (입맛 다시며) 그.. 뭐.. 구급차 불러라..

페이드아웃.
페이드인.

-앰블런스 1 앞

누워있는 고 반장에게 다가오는 영호와 재훈.

영호 이변엔 총이네요..
재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 반장을 앉고) 범인 처음 잡아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고 반장 으음.. 아퍼.. 아퍼..
영호 너 대신 맞으셨단다.
재훈 (!!!) 오늘부터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고 반장 ... (촉촉한 눈으로 웅얼웅얼)
재훈 네?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고 반장 입에 귀를 대고)
고 반장 ... (작은) 하지 마... 이 새끼야...

-앰블런스 2 앞

치료를 마친 마 형사와 데면데면하게 앉아 있는 장 형사.

마 형사 그거... 진짜야? 나 얼굴밖에 볼 거 없다는 거...?
장 형사 (탄 데 보며) 그럼 니가 볼 게 뭐 있냐?
마 형사 ... 그래서 커플 위치추적 앱도 칸 거 였니..?
장 형사 그건 니가 자꾸 사고 치니까 그런 거고...

서로 탄 데 보는 듯 하다가... 눈이 마주치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서히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서로의 입술.
별안간 로맨틱 키스. 세상 부드러운..
마 형사, 키스 하다가 아! 아! 하고 괴로워하지만
더욱 더 열정적으로 입을 문대는 장 형사.

먼발치서 그런 두 사람을 우두커니 보고 있는 고 반장, 영호, 재훈. 정적..
옆에 서있던 경찰의 총을 빼내려고 하는 영호.

경찰 (뜯어말리며) 왜.. 왜 이러세요?!

영호 잠시만 저.. 쏘 데가 있어가지고,, 잠시만..

재훈 (입을 벅긋거리려는 고 반장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고 반장 ㄴ.. ㄴ. 쏘라구 새끼야..

넓은 화면에서 페이드아웃.

97. 소고기 집 / 밤

강력반과 마약반. 마주 보고 고기를 먹는다.
강력반은 뭔가 시선을 피하는 듯한 느낌...

마 형사 너네.. 홍상필이 마을버스가 잡았다매?

강력반1 ..스쿨버스야!!

썰까고 고기 먹는 최 반장을 보며 바보같이 웃는 고 반장.

98. 경찰 행사장 / 낮

정복차림의 마약반. 일렬로 서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객석에 박수치며 좋아하는 서장. 그 옆에 떨떠름한 최 반장.

서장 팀 전원 특진이란 거.. 너 본 적 있냐?

내가 재네를 왜 모아놨겠냐? 아하하하하..

차례로 거수경례를 마친 후 뒤로 도는 마약반. 함께 거수경례.
환하게 웃는 그들의 모습 5분할.

99. 목재창고 어디쯤 / 낮

마약반 5분할 그대로.
범인을 쫓아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

성우NA 이런 직업이 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분할 화면에서 넓은 화면으로 바뀌면,
범인들을 쫓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마약반의 모습이 보인다.

성우NA 더럽고..

의욕에 앞서 달리다 진흙탕에 뒹구는 재훈.

성우NA 위험하지만..

앞서 달리던 조직원들이 질주를 멈추고 여유 있게 돌아보면..
어디선가 숨어있던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멈칫 서는 마약반. 순간 당황하지만 이내 재미를 느끼는 표정들.. 몸을 푼다.

성우NA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극한직업! 참.. 극적인 직업!

마약반... 순간 살기를 뿜어내며.. 달린다.. 날아오른다!

끝.